

龍仁 新葛 宅地開發地區內 發掘調査 報告書

소 상 영
김 현 준

2001

畿甸文化財研究院
大韓住宅公社

일러두기

1. 조사대상 및 시기

- 대상지역 :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산5번지 일대
- 시 기 : 고려~조선시대
- 대상유적 :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산 5번지 사지

2. 지도

- 본문에 삽입된 유적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 1/100,000, 1/5,000을 기본으로 하였다.

3. 도면

- 본문의 유구도면은 1/30 축소를 기본으로 하고 별도의 스케일을 표시하였다.
- 유물실측도면은 1/3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른 것은 별도의 스케일을 표시하였다.

4. 기타

- 본 지표조사는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이 대한주택공사의 용역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조사와 보고서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였다.
(조사비용 : 32,374,000원)

차례

I. 調査概要	8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10
2. 考古學的 環境	10
3. 歷史的 環境	16
III. 調査經過 및 方法	18
IV. 調査內容	
1. 건물지	
1) 유구	20
(1) 1호 건물지	20
(2) 2호 건물지	24
2) 출토유물	24
2. 1호 담장지	
1) 유구	29
2) 출토유물	30
3. 2호 담장지	
1) 유구	40
2) 출토유물	40
V. 考察	
1. 遺構와 遺物의 檢討	44
2. 遺構의 配置와 築造方法에 對한 檢討	45
VI. 맺음말	48

도 면 차 례

도면 1. 유적 위치도 (1:50,000)	9
도면 2. 유적 지형도 (1:5,000)	11
도면 3. 유적 지형도 (1:50,000 1917년)	12
도면 4. 용인일대 유적 분포도 (1:100,000)	13
도면 5. 19세기 지방지도의 용인현 읍치부분	17
도면 6. 유구 배치도(1:200)	19
도면 7. 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	21
도면 8. 건물지 출토유물①	23
도면 9. 건물지 출토유물②	25
도면 10. 건물지 출토유물③	26
도면 11. 건물지 출토 철슬편	28
도면 12. 1호 담장지 평면도 및 단면도	31
도면 13. 1호 담장지 출토유물①	33
도면 14. 1호 담장지 출토유물②	35
도면 15. 1호 담장지 출토유물③	37
도면 16. 1호 담장지 출토유물④	38
도면 17. 1호 담장지 출토 불상대좌	39
도면 18. 2호 담장지 평면도 및 단면도	41
도면 19. 1호(1, 3) · 2호 담장지(2, 4~8) 출토유물	43

사 진 차 례

사진 1. 유적원경 및 조사전 전경	51
사진 2. 건물지 및 1호 담장지 전경	52
사진 3. 건물지 조사 중 전경 및 조사완료 후 전경	53
사진 4. 건물지 전경, 남북 토층도, 아궁이시설 상태, 적심세부	54
사진 5. 건물지 출토유물(명문 및 문양 기와류)	55
사진 6. 건물지 출토유물(기와류 및 철슬편)	56
사진 7. 건물지 출토유물(자기류)	57
사진 8. 1호 담장지 조사 전 상태, 트렌치 내 유구노출 광경, 내부조사 중 상태	58
사진 9. 1호 담장지 조사완료 후 전경 및 유물 출토상태	59
사진 10. 1호 담장지 내 배수로 전경 및 1호 담장지 전경(북 → 남)	60
사진 11. 1호 담장지 북측 이형유구, 동서담장석렬, 2호담장지 전경	61
사진 12. 2호 담장지 동서 · 남북 담장열 전경 및 유물 출토상태, 2호 담장지 전경(남 → 북)	62
사진 13. 1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 기와류)	63
사진 14. 1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 및 문양 기와류)	64
사진 15. 1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 및 문양 기와류)	65
사진 16. 1 · 2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 및 문양 기와류, 암막새)	66
사진 17. 2호 담장지 출토유물(자기류)	67
사진 18. 1 · 2호 담장지 수습유물, 불상대좌, 지표조사 수습기와	68
사진 19. 4구역 트렌치 상태 및 트렌치 세부 모습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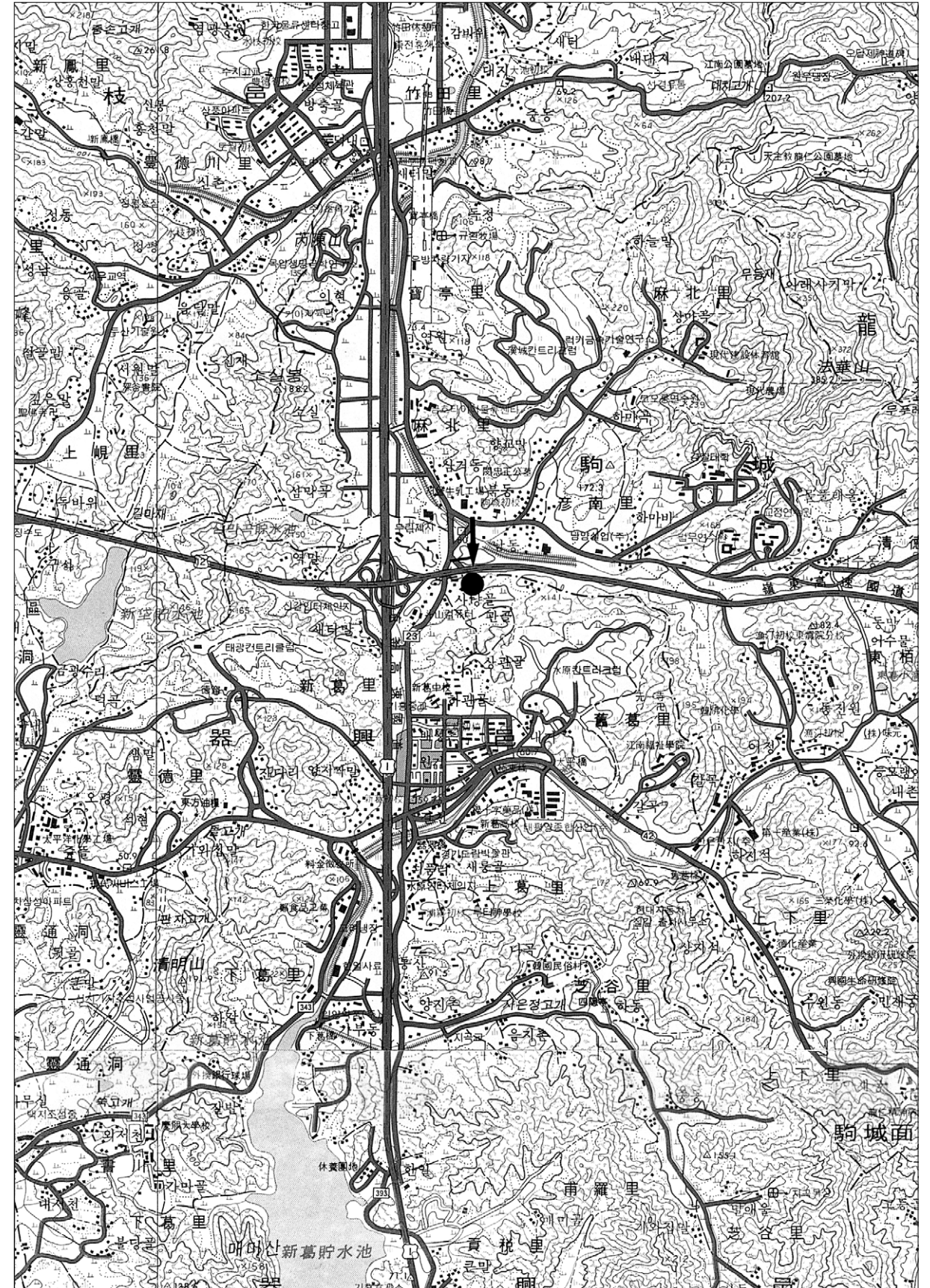
I . 調査概要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산5번지 일원 약 1400여평에 대하여 2000년 6월 30일부터 2000년 8월 28일까지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곳으로 전체면적은 12만2천여평에 달한다. 본 발굴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된 3, 4지점을 대상으로 우선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건물지와 담장석렬 등의 유구가 확인된 조사 3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건물지 2동과 담장석렬 2동이다. 유구는 후대의 교란이 극심하여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玄化寺’명 기와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사지로 판단된다. 건물의 사용시기는 기와의 제작방법과 문양,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말~조선초기로 추정된다. 금번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단 장 : 장 경 호 (기전문화재연구원장)
- 지 도 위 원 : 故 한 병 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
- 김 동 현 (동국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 이 남 규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책임조사원 : 김 성 태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조 사 원 : 소 상 영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김 현 준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 조사보조원 : 강 동 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 윤 명 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년)
- 오 승 렬 (인하대학교 사학과 3년)

보고서 작업에 있어 제반사항은 김현준이 담당하고 김태근(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박순영(충신대학교 역사교육학과 4년)이 보조하였다. 유물의 실측, 도면의 제도 및 편집은 김태근, 박순영이 담당하였고, 사진촬영 및 편집은 김현준, 김태근이 담당하였다. 원고의 집필은 김현준과 이승연이 작성한 것을 김성태, 소상영이 가필 수정하였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장경호가 감수하였다.



도면 1. 유적 위치도 (1:50,000)

Ⅱ. 遺蹟의 位置와 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용인시는 경기도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위도상 동경 238° 10' ~ 201° 30', 북위 398° 30' ~ 430° 10'에 위치한다. 용인시는 광주산맥에 속하여 남북으로 뻗어 있는 네 개의 산줄기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다. 시의 서쪽으로 화성군과의 경계지역에는 광교산, 백운산, 바라산, 형제봉 등으로 이루어진 400m 이상의 남북방향 산릉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비교적 고도가 낮은 산릉이 남북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요 산봉은 수정산, 구봉산, 정배산 등으로 저구릉성산지들이 발달해 있으며 그 사이에 침식저지와 충적지들이 형성되어 있다. 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주요 하천으로는 금령천, 기흥천, 청계천, 탄천과 신갈천이 있다. 주로 이들 하천을 따라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유적도 하천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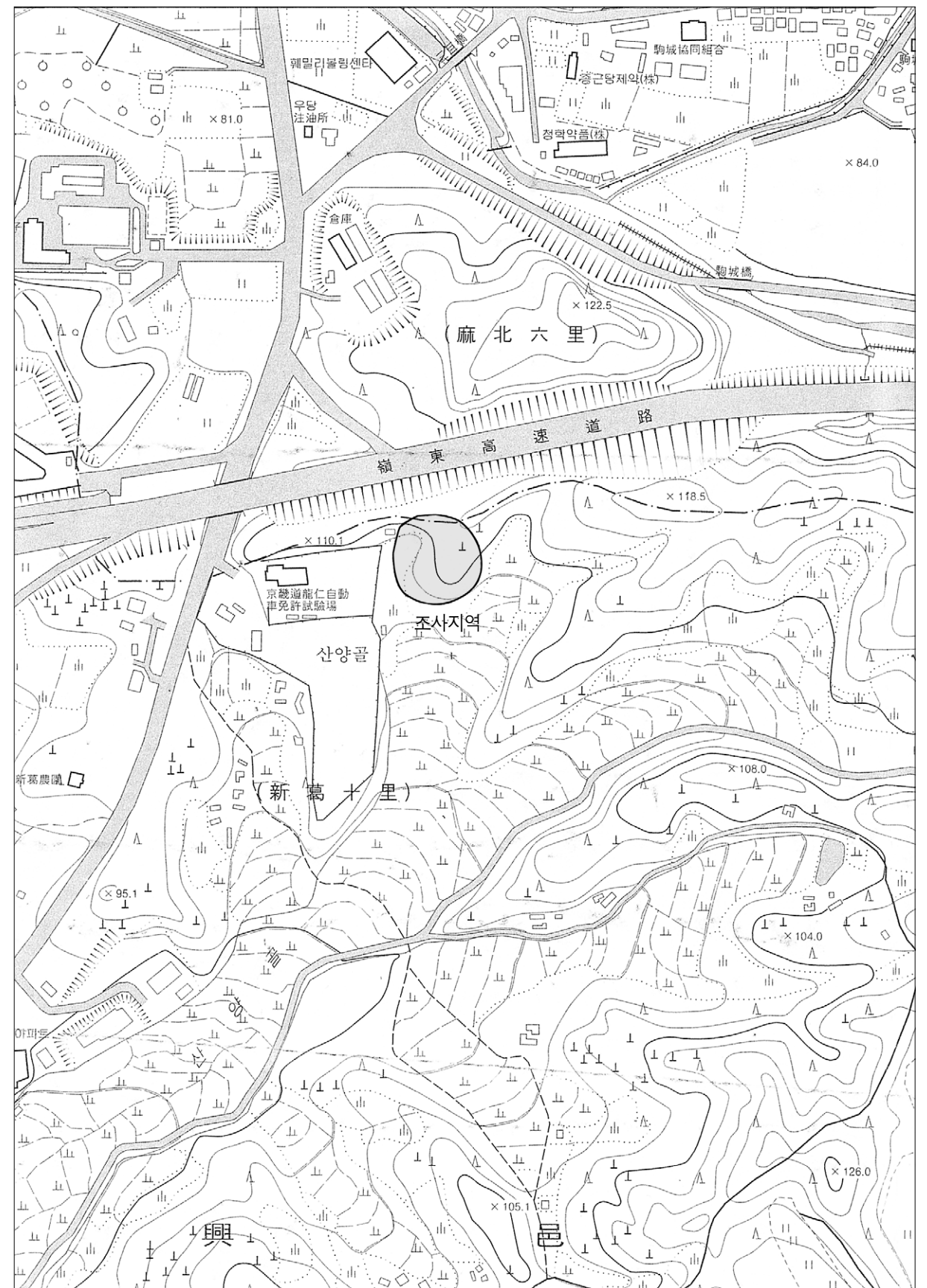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산5번지 일원으로 용인면허시험장 동측편에 자리한다. 유적은 해발 110.1m의 능선에서 뻗어 내린 소구릉상에 위치해 있으며, 면허시험장을 기준으로 동쪽사면·남동쪽 사면이 해당된다. 유적 주변은 해발 110~200m 내외의 봉우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낮은 구릉지대로 대부분 경작지대로 사용되며, 군데군데 민묘들이 분포한다. 유적의 남쪽은 경작지대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와 맞닿아 있다. 서쪽으로는 약 700m 떨어져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한다. 조사지역 중 면허시험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은, 예전에 전투경찰중대의 막사가 있었던 관계로 상당부분이 교란되었다.

일제시대에 조성된 지형도(도면3)를 통하여 조사지역의 원래 지형을 살펴보면, 면허시험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소로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 소로는 북쪽의 남동마을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영동고속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논과 밭이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는 저지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곳과 북쪽의 마을이 서로 왕래가 가능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2. 考古學的 環境

용인시 일대는 최근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폭등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구성면, 기흥읍, 수지읍 일대에 집중된다. 따라서 구제발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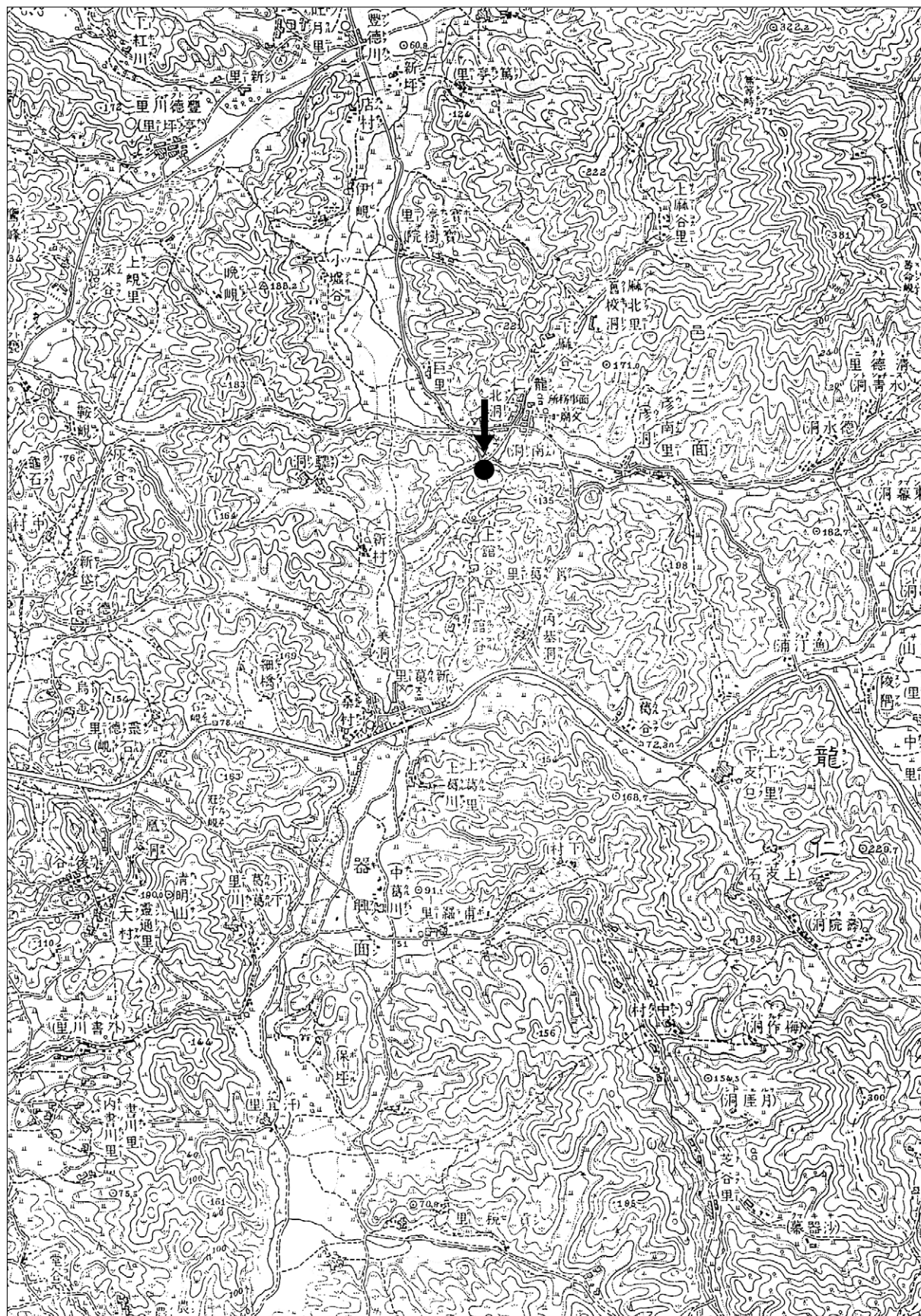
용인시 일대의 고고학적 조사는 일제시대에 도요지를 중심으로 시작 되었고, 이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국립박물관에 의해서이다¹⁾. 이 조사에서 기존에 알려진 유적을 재확인하고 하천변과 작은 구릉을 중심으로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후 용인시에 대한 지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서인데²⁾, 이 조사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이동면, 남사면 등 5개 지점에서 최초로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구석기시대 유적 유



도면 2. 유적지형도 (1:5,000)

1) 국립중앙박물관, 『신암리 I』,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0책, 1988

2) 서울대학교박물관, 『용인시의 문화유적』, 1996.



도면 3. 유적 지형도(1:50,000 1917년)

물로는 이외에도 수지읍 죽전1리에서 타제석기 1점이 채집되었으며³⁾, 양지면 평창리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⁴⁾. 신석기시대유적은 기흥읍 상갈리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다수 출토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⁵⁾. 이 유적에서 뚜렷한 유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 내륙지역에서 발견예가 드문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동기시대유적은 유물산포지와 지식묘가 곳곳에서 확인된다⁶⁾. 지식묘는 구성면 상하리, 원삼면 사암리·맹리, 백암면 근사리, 양지면 주북리, 모현면 신원리·초부리 등에 분포한다. 유물산포지는 포곡면 유운리·전대리, 구성면 상하리·보정리 연원부락, 기흥읍 고매리·구갈리, 양지면 정수리, 남사면 봉무리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구갈 3지구⁷⁾, 임진산성지에서 반월형석도와 무문토기편이 발견되어 이 일대도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⁸⁾. 최근 본 연구원이 실시한 기흥읍 구갈리⁹⁾, 수지읍 죽전리·보정리¹⁰⁾ 일대 시굴조사에서 다수의 주거유적을 발견하였다. 죽전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수혈유구 4기·소성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구갈리에서는 백제시대 주거지 11기·저장공 11기 등이 조사되어 당시의 취락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유적으로는 수지읍 풍덕천리에서 백제시대 주거지¹¹⁾, 마북리 하늘말고분군¹²⁾, 중세유적으로는 마북리고령고분군¹³⁾이 있으며 중세유적으로는, 좌향리 고려고분군이 대표적이다. 이 중 수지 백제주거지, 용인 마북리하늘말고분군, 마북리 고려고분군은 발굴조사된 유적으로 수지 백제주거지에서는 주거지 6기와 다량의 토기와 철기가 확인되었다. 하늘말고분군은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석곽묘, 토광묘가 조사된 유적으로 인화문토기·청자·청동수저 등이 출토되었다. 마북리 고려고분군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 4기·석곽묘 4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대접·접시 등의 청자류와 거울, 숟가락 등의 청동기류가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도요지¹⁴⁾, 사지, 관방유적¹⁵⁾, 수지읍 풍덕천리 임진산성유적¹⁶⁾ 등이 조사보고된 예가 있다. 특히 寺址는 발굴조사된 예는 거의 없지만 지표조사를 통해 수지읍 신봉리 서봉사지, 원삼면 문재리 문수사지, 백암면 박곡리사지·용주암지, 백봉 3동 백봉리사지등이 보고되었다¹⁷⁾. 그 외 문헌에 전하는 절터로는 굴암사, 극락사, 금수암, 백련사, 보해암, 불당사, 비봉사, 선장사, 성불사, 신림사, 쌍영사, 안양사, 용덕사, 용암사, 조천사 향수사, 획주사 등이 있어,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사찰이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 3) 한신대학교博物館, 『龍仁市 竹田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9.
- 4) 서울대학교考古美術史學科·京畿道博物館, 『龍仁坪倉里 舊石器遺蹟 試掘調査報告』, 1998.
- 5) 명지대학교·한신대학교박물관, 『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1998.
- 6) 주 2) 서울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96.
- 7) 명지대학교박물관, 『기흥 구갈 3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7.
- 8) 이인숙, 백종오, 『용인 임진산성 긴급발굴조사보고서』, 京畿道博物館, 2000.
- 9)畿甸文化財研究院, 『器興 舊葛(3) 宅地開發豫定地區內 遺蹟 試掘調査 略報告書』, 2000.
- 10)畿甸文化財研究院, 『龍仁 竹田 宅地開發豫定地區內 遺蹟 試掘調査 略報告書』, 2000.
- 11) 한신대학교박물관,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1998.
- 12)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용인마북리유적』, 1997.
- 13) 김성태, 『용인마북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97 경기도박물관 발굴조사개보』, 1997.
- 14) 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 도요지』, 1999.
- 15)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삼호건설 아파트사업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1998.
- 16) 京畿道博物館, 『龍仁 壬辰山城 緊急發掘調査報告書』, 2000.
- 17) 용인시, 용인문화원, 중앙승가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용인의 옛절터』, 1999.
- 18)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1999.

용인시는 삼국시대에 滅烏, 駒城등으로, 고려시대에는 龍駒로 불리워졌는데, 조선 태종 13년에 龍駒縣과 處仁縣을 합하여 용인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의 용인시는 1914년 3월 지방행정 단위를 통폐합하여 전국을 97개 군으로 개편할 때 이전의 용인현과 양지현, 그리고 죽산현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된 것이다.

삼국시대의 용인은 지역적으로 보아 백제에 속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지읍 풍덕천리(현 수지 2지구)에서 백제 주거지가 확인되었고¹⁹⁾, 죽전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백제토기편들이 다수 수습된 점으로²⁰⁾ 알 수 있다.

이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에 따라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용인지역은 駒城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州-郡-縣制에 따라 漢山州에 편입되어 駒城이란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어 駒城縣으로 불렸다. 景德王 16년(757년) 구성현은 巨黍縣으로 변경되었으나 고려의 개국과 함께 다시 구성현으로 불리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려를 세운 왕건은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940년 태조 23년 전국의 州, 府, 郡, 縣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고치면서 고구려 때 사용하였던 구성이라는 명칭에다가 龍자를 붙여서 龍駒縣으로 고쳤으며 성종 때에 12牧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廣州牧에 속하게 하였다. 여기서 조선시대의 용구현은 현재의 구성읍 언남리·마북리 일대의 駒城과 보라리·신갈 일대의 龍興을 합친 지역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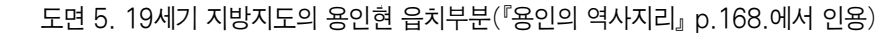
조선시대 용구현을 중심으로 하는 용인지역은 조선 건국 직후 단행된 군현 통폐합에 의해 龍駒縣과 處仁縣을 합쳐 龍仁縣으로 행정개편되어 水原鎭에 부속되었다가 南陽府에 속하게 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본 조사지역의 생활권이었던 駒城일대는 6세기 이후 용인지역의 행정중심지였던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현 구성면의 언남리와 마북리는 고려 이래 縣의 治所였던 것이다²¹⁾.

이상과 같이, 삼국시대부터~조선시대까지 본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현 구성면 지역은 縣의 중심지 즉 邑治였던 곳이다. 그런 까닭에 역사시대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 적 명	현위치	내 용	시 대
마북리 고려고분군	구성면 마북리	고 분	고 려
마북리 하늘말 고분군	구성면 마북리	고 분	통일신라~고려
용인 향교	구성면 언남리	향 교	조 선
용인향교 하마비	구성면 언남리	비 석	조 선
마북리 석비군	구성면 마북리	비 석	조 선
보정 1리 유적	구성면 보정리	추정 관방유적	조 선
언남리 와요지	구성면 언남리	와요지	조 선
언남리 생산유적	구성면 언남리	생산유적	통일신라~조선

- 19)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 수지 백제 주거지』, 1998
- 20) 한신대학교 박물관, 『용인 수지 2지구 문화유적 및 민족조사 보고서』, 1995
- 21) 이상은 다음의 문헌을 정리한 내용이다. 용인문화원, 『기흥읍지』, 2000.



위와 같은 유적의 현황은 삼국시대부터 현재의 구성면 일대의 중심지가 본 조사지역임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적의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점은 舊邑聚落이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며, 본 유적 역시 구읍취락에 속한 종교유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조선시대 읍취락에 관하여 개괄해 두고자 한다. 읍취락은 행정·경제·군사·교육·종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 일반 촌락과는 다른 경관 및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시설로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官衙가 있었는데, 관아는 몇 개의 건물로 나누어진다. 수령이 공무를 집행하고 기거하는 동헌, 그 외 관리들이 행정사무를 보는 吏廳, 재지세력의 자문기관인 鄉廳, 여행하는 관리들을 위한 客舍, 죄인을 수용하는 獄舍,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지방경제의 중심이 되는 市場, 군사적 기능을 위한 군기고·군랑고, 교육기관인 향교, 종교적 기능을 지닌 성황당·사직단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²²⁾.

22)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용인의 역사지리』, 2000.

Ⅲ. 調査經過 및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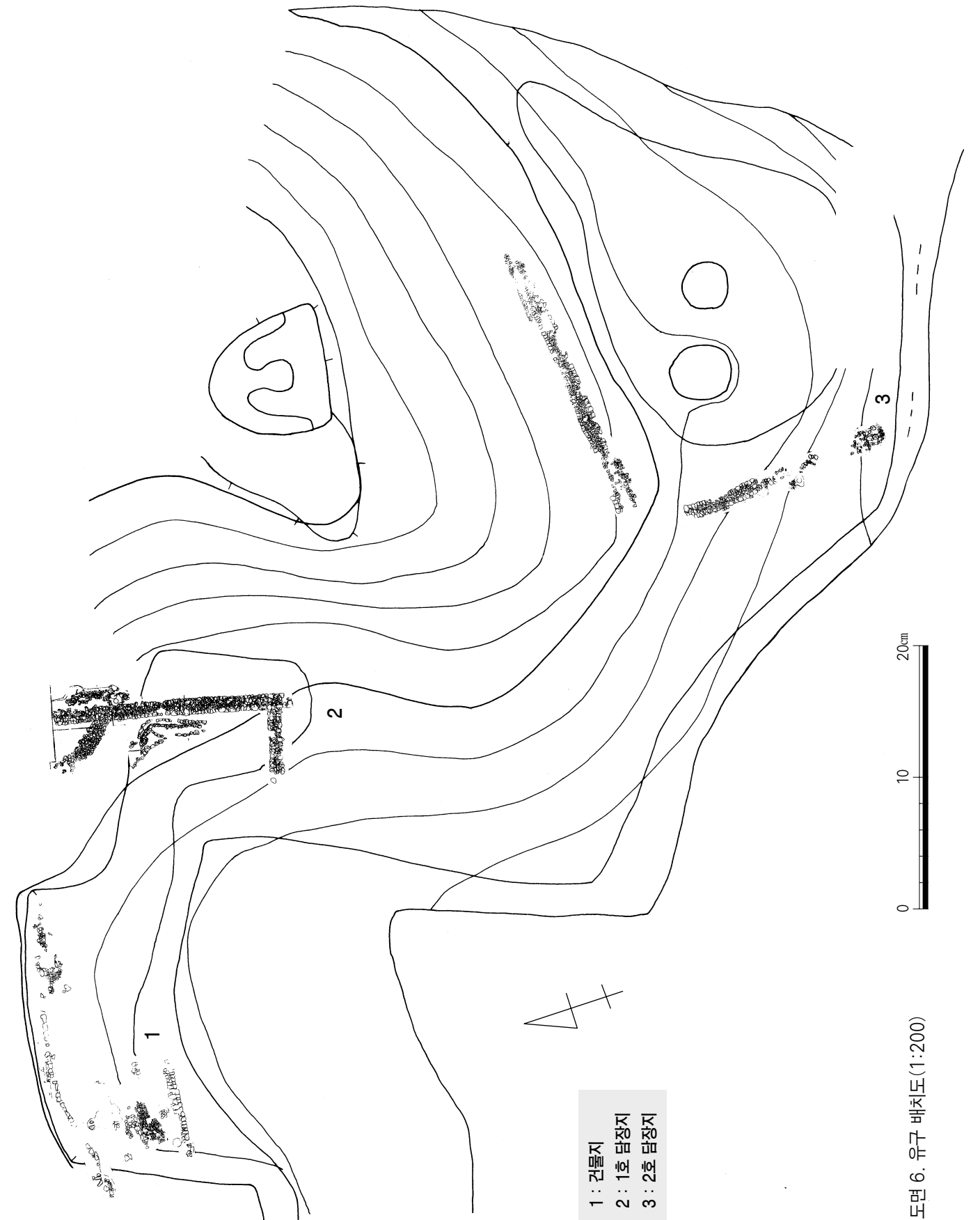
최근 용인시 일대는 택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의 조사도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번 조사지역도 총 12만여 평에 달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모두 2차에 걸쳐 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주)신일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던 지역으로 한신대학교박물관이 1998년 5월 25일부터 동년 6월 7일까지 총 14일간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²³⁾를 실시하였다. 1차 사업부지는 용인면허시험장에서 동편에 위치한 평지와 맞닿아 있는 구릉지대이며, 2차 사업부지는 1차 사업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35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 곳 역시 논과 밭을 이루고 있는 얕은 구릉지대이다. 지표조사 결과 면허시험장과 인접한 1차 사업부지에서는 기단석과 기와편이 확인되어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편 구릉에서는 파괴된 석곽묘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발견되어 관련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건물지에서 채집된 기와편에는 '惠用' 등의 명문이 확인되어 寺址나 官衙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차 사업부지에서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 2차 조사는 (주)신일이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한 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서 이를 인수하고 지역을 추가로 편입시켜 약 12만 2천여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원은 1999년 8월 2일부터 21일까지 조사지역을 8개 지점으로 나누고 추가지역까지 포함하여 지표조사를 재실시하였다²⁴⁾. 조사결과 3·4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은 유물산포지만 확인되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사 3지점(한신대 조사구간 1차사업부지)은 기단석과 명문기와가 확인되는 등, 유구나 유물이 한신대의 조사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寺', '完' 등의 명문기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사 4지점(한신대 조사구간 2차사업부지)에서도 석곽묘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발견되어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굴조사결과 자기편 일부만 수습되었을뿐 별다른 유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유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발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사진 19)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은 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곳의 동편, 남동편 구릉사면이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폭 2m, 간격 5m로 트렌치를 설치하고, 지형에 따라 간격은 다소 유동성 있게 조정하였다. 트렌치는 면허시험장과 인접한 평지에 4개, 동쪽사면에 5개, 남동쪽 사면에 3개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곳에서는 반파된 건물지가 노출되었고, 담장석렬은 동쪽사면의 하단부에서 1곳, 남동쪽 사면의 중간 부분에서 1곳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출된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제토를 실시하여 유구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였다. 유구는 반파된 건물지 2동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된 담장석렬은 모두 2개소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다수의 기와편과 자기편이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건물의 용도는 노출된 유구의 양상으로는 그 성격을 알 수 없고, '玄化寺', '卍' 등의 명문기와와 기와의 문양으로 보았을 때

23)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주)신일 개발지역 1차 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附: 2차 사업부지 조사결과, 1998.

24)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용인 신갈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9.

25) 그러나 '玄化寺' 명문과 관련된 어떠한 문헌기록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면 6. 유구 배치도(1:200)

고려말~조선시대의 寺址로 판단된다²⁵⁾. 건물지는 2기의 건물이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1·2호 건물지로 명명하고 동쪽사면에 확인된 담장을 1호 담장지, 남동쪽 사면의 담장을 2호 담장지로 명명하였다. 1호 담장지와 인접한 평지에서는 북쪽의 석렬을 제외하고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트렌치 조사결과 후대에 심하게 교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호 담장지도 내부에 후대의 민묘조성으로 이미 유구가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Ⅳ. 調査内容

1. 건물지

유적은 앞으막한 구릉 사면의 평탄면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지대를 두고 조성되었다. 해발고도 약 99m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표하 약 20cm인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1호담장지와 약 22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건물지 북편으로 구릉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건물지의 외곽을 감싸며 돌아가는 석렬이 확인된다. 석렬은 불규칙하게 띄엄띄엄 연결되어 있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북측석렬은 남아 있는 건물지의 영역보다 1호담장지 방향으로 더 잘 남아있고, 동측으로 석렬과 인접하여 외적층만 일부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외곽석렬 1기, 기단 2기와 적심 4기, 화덕자리 1기, 아궁이시설 1기이다. 기단과 적심의 나열상태로 보아 최소한 2번 이상의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파손이 심한 상태로 노출되어 건물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서편에 후대건물의 축조로 파괴된 단애면에서 석렬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서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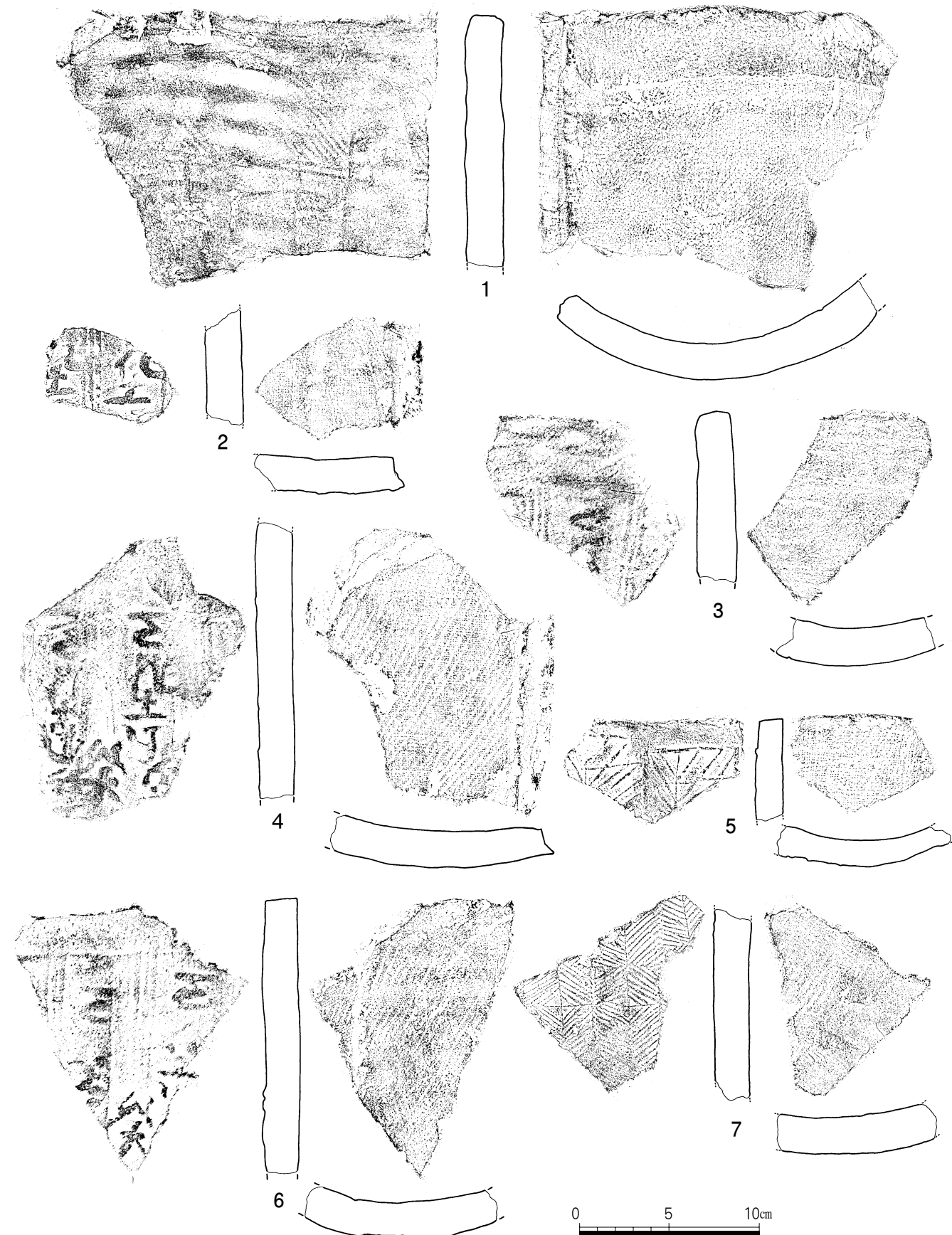
건물지의 전체적인 토층상황은 동측에 남아 있는 단애면을 통하여 남북으로 이어지는 토층을 살펴볼 수 있다. Ⅰ층은 표토층으로 황갈색사질점토층이며 자갈과 모래가 일부 섞여 있다. Ⅱ층은 연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점토와 모래가 일부 혼입된 부식토이다. Ⅲ층은 적갈색사질점토층으로 유구와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층이다. Ⅳ층은 생토층으로 풍화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건물의 서열은 유구의 배치상으로 보아 남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단과 그에 접한 두 개의 적심, 그리고 윗쪽의 아궁이시설이 초축되었으며, 중앙에 위치한 기단과 북쪽의 적심 2기가 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축건물지를 1호건물지, 후축 건물지를 2호 건물지로 명명하였다.

유물은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철제술편 등이 출토되었다.

1) 유구(도면 7, 사진 2~4)

(1) 1호 건물지



도면 8. 건물지 출토유물 ①

1호 건물지는 기단 석렬1기, 적심 2기, 아궁이시설 1기가 확인되었다. 기단의 장축은 동서방향이며 주칸거리 3.2m이다. 기단의 규모는 잔존길이 560cm, 폭 86cm이며 동쪽면은 교란되었다. 기단은 1~2단 정도만이 남아 있고, 축조방법은 생토층을 정지하여 직경 40~60cm의 천석을 기초로 바깥쪽으로 면을 맞추어 쌓고 상단은 안쪽으로 30cm 들여서 시설하였다. 적심은 2기가 보이며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단의 서쪽편 적심은 직경 64cm이며 길이 24~28cm 크기의 할석으로, 동쪽편 적심은 직경 96cm이며 길이 32~36cm 크기의 할석으로 생토층을 파고 조성하였다. 아궁이 및 고래는 2호 건물지의 적심 1기와 중복되어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로 노출되었다. 규모는 소토와 목탄범위로 보았을 때, 길이 250cm, 폭 160cm이며, 아궁이에는 판석 2기가 양옆에 세워져 있고 판석 가운데에는 소토가 잔존하고 있다. 고래는 세줄고래로 소토 및 목탄의 흔적이 ‘|’ 자로 형성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도 목탄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2호 건물지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기단석렬 1기, 적심 2기, 화덕자리 1기가 확인되었다. 기단의 장축은 동서방향이며 주칸거리 2m이다. 규모는 현길이 250cm, 폭 360cm로 1단만 남아 있고, 직경 24~40cm의 돌을 기초로 바깥쪽면을 맞추어 쌓은 모습이 확인된다. 기단 밑으로 와적층이 일부 형성되어 있다. 적심 2기중 동쪽편에 있는 적심은 아궁이시설과 중복되어 있다. 서편 적심은 잔존직경 50cm, 길이 40cm, 동편 적심은 직경 66cm, 길이 40cm~46cm 크기의 할석으로 조성하였다. 유물은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① 암키와편(도면 8-1, 사진 6-⑤)

회색의 경질와편으로 건물지 북측석렬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희미하게 ‘寺’ 자 명문이 양각되어 있고,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연철흔이 굵게 확인되고 포목흔과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측면내측에 분할도흔이 1/3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5.5cm, 현폭 19.2cm, 두께 2.1cm

② 암키와편(도면 8-2, 사진 5-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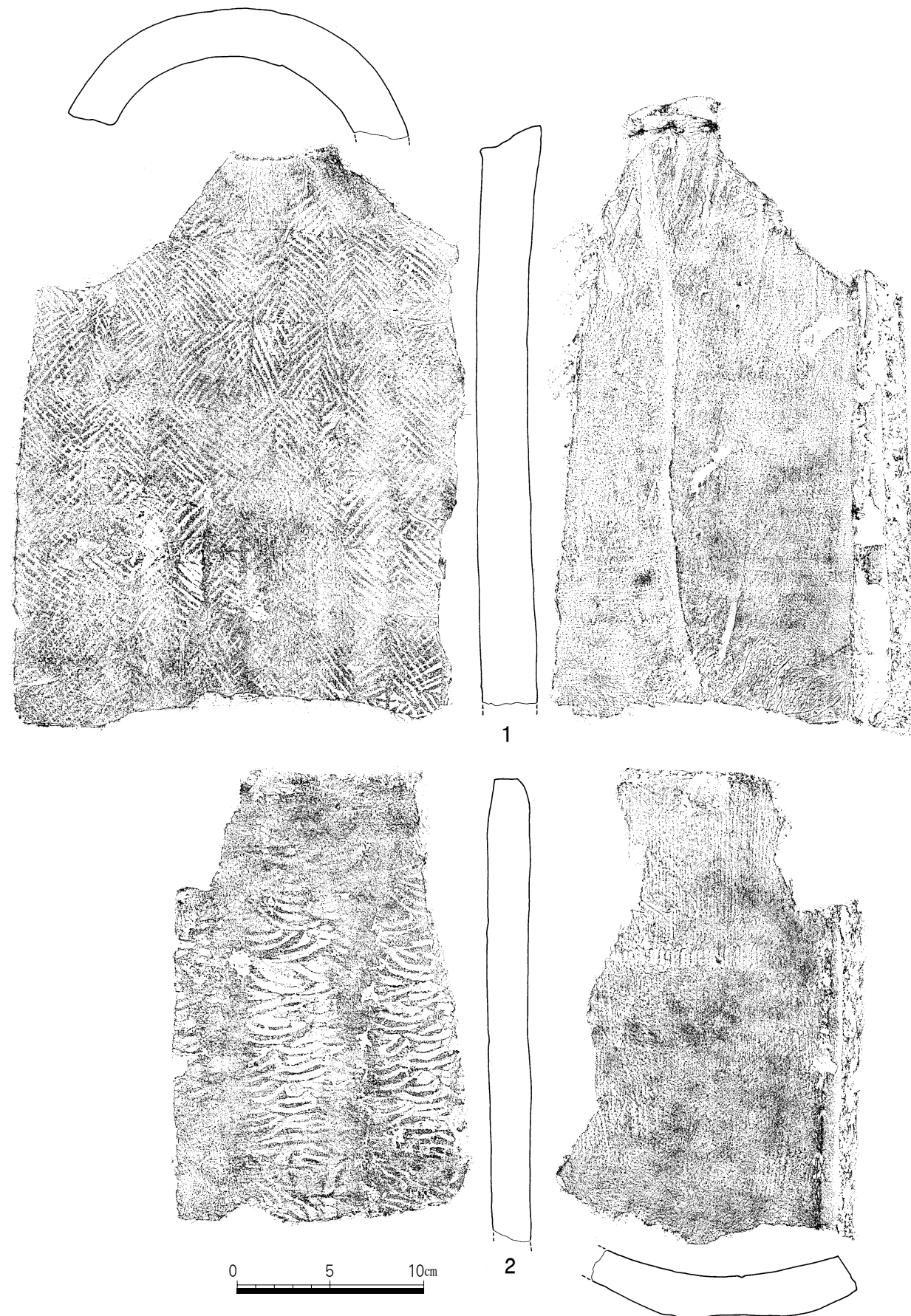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2호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化寺’, ‘寺’ 자 명문이 방각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3 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6.8cm, 현폭 8.5cm, 두께 1.9cm

③ 암키와편(도면 8-3, 사진 6-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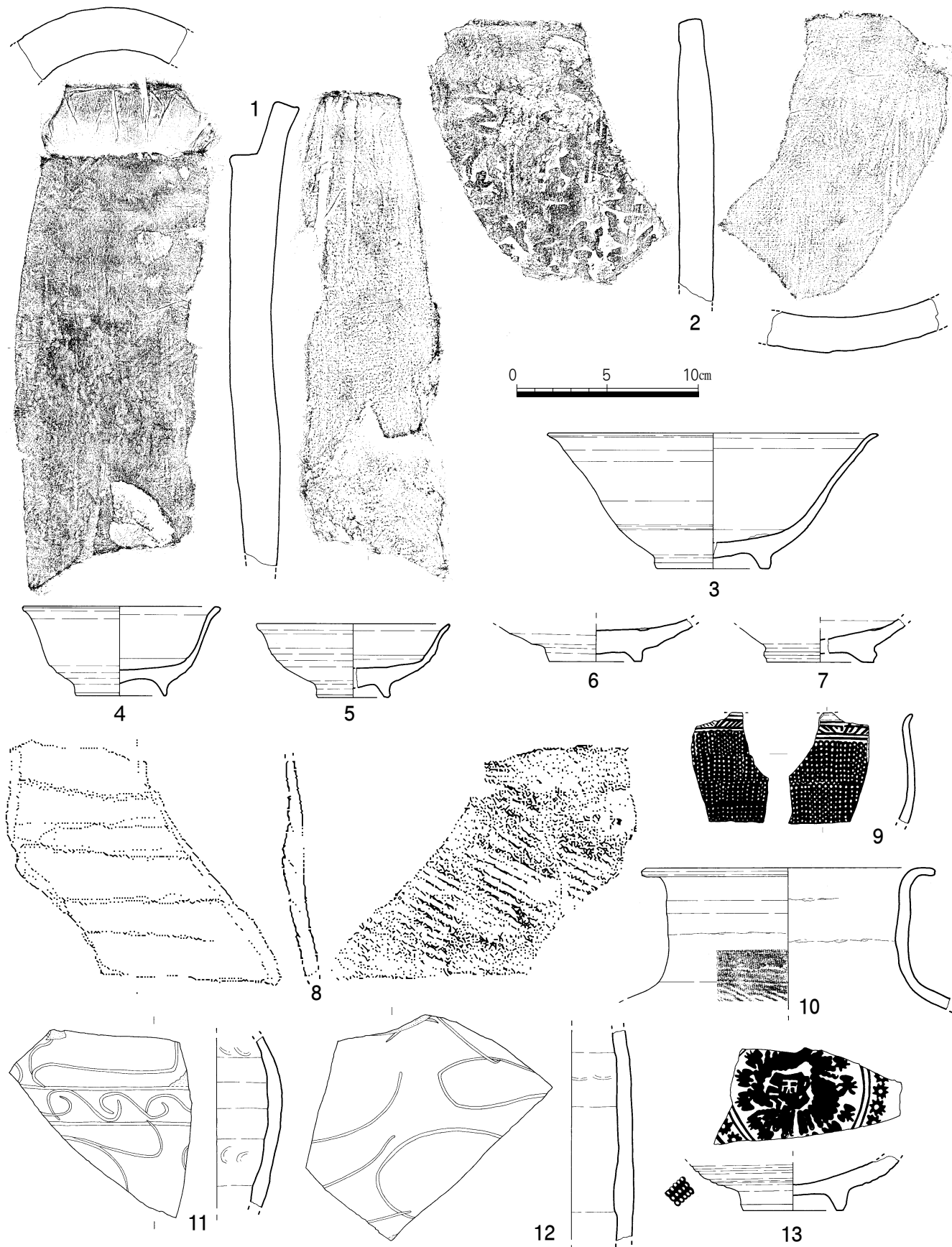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玄’ 자 명문이 방각을 두고 희미하게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상단은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연철흔이 일부 확인되며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0.0cm, 현폭 10.6cm, 두께 2.0cm

④ 암키와편(도면 8-4, 사진 6-④)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玄化寺’ ‘癸’ ‘玄化寺’ 자 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고, ‘寺’ 자 밑에도 名文이 있는데 판독이 불가능하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이 관찰되며, 포목을 벗긴후 빗질 정면한 흔적이 대각선으로 확인된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2/3 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도면 9. 건물지 출토유물 ②



도면 10. 건물지 출토유물 ③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4.6cm, 현폭 12.8cm, 두께 2.0cm

⑤ 암키와편(도면 8-5, 사진 5-③)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2호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고, 상단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6.4cm, 현폭 9.9cm, 두께 1.4cm

⑥ 암키와편(도면 8-6, 사진 6-②)

회색 경질와편으로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玄化寺' '癸' '玄化寺' 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으며, 상단에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대각선으로 빗질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5.2cm, 현폭 6.4cm, 두께 2.0cm

⑦ 암키와편(도면 8-7, 사진 6-①)

회색의 경질와편으로 2호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마름모꼴 문의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물손질흔과 빗질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9.9cm, 현폭 9.3cm, 두께 1.9cm

⑧ 암키와편(도면 9-2, 사진 5-⑤)

회청색 경질와편으로 북측석열 동측부분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청해파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연철흔과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종방향으로 빗질 정면하였다. 측면 외측으로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24.4cm, 현폭 14.4cm, 두께 2.2cm

⑨ 암키와편(도면 10-2, 사진 5-②)

회색 경질와편으로 북측석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寺', '癸', '玄化寺', '癸', '玄化寺' 자 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마모흔이 있다. 상단에 물손질흔이 일부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6.2cm, 현폭 10.9cm, 두께 1.8cm

⑩ 수키와편(도면 9-1, 사진 5-①)

회청색 경질와편으로 북측석열 동쪽부분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집선문이 횡방향으로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측면 내측으로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다. 현길이 31.3cm, 현폭 18.0cm, 두께 2.9cm

⑪ 수키와편(도면 10-1, 사진 5-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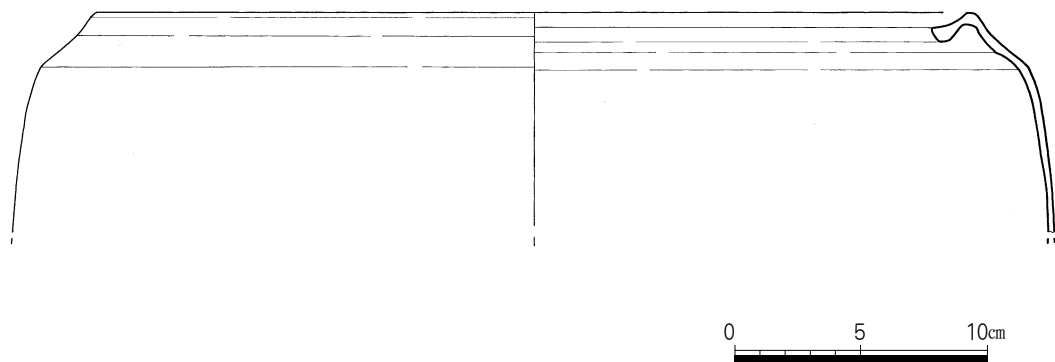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 와편으로 측면 일부가 결실된 유단식 수키와이다. 북측석열 동쪽부분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문양은 없으며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며 합철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22.1cm, 현폭 9.5cm, 두께 2.6cm

⑫ 동체부편(도면 10-8, 사진 7-⑩)

건물지 북측석열에서 출토되었다. 점토피와 평행타날흔적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굵은 백색 석립이 섞여 있고, 내외면에는 녹색색 유약이 시유되었다. 현재길이 13.4cm

⑬ 분청사기 대접편(도면 10-9, 사진 7-⑨)

건물지 북측석열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내외면에 인화기법으로 점열문이 시문되었다. 현재길이 6.1cm



도면 11. 건물지 출토 철슬편

⑭ 분청사기 구연부편(도면 10-10, 사진 7-⑦)

건물지에서 출토된 호의 구연부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이 섞여있고, 속심과 유약의 색조는 갈색을 띠는데, 외면 일부는 녹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경부 내외면에서는 테쌍기 흔적이 보이고, 평행타 날흔도 관찰된다. 건부 외면에는 백토로 문양이 그려진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높이 7.3cm, 복원구경 16.5cm

⑮ 분청사기 동체부편(도면 10-11, 사진 7-⑪)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고, 호류의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여있어 거칠다. 외면은 귀얄 기법으로 백토분장 후 음각기법으로 문양을 조각하였다. 내외면에 빙열이 발생하였다. 현재길이 9.6cm

⑯ 분청사기 동체부편(도면 10-12, 사진 7-⑧)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고, 호류의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여있어 거칠다. 외면은 귀얄 기법으로 백토분장 후 음각기법으로 문양을 조각하였다. 현재길이 12.0cm

⑰ 분청사기 저부편(도면 10-13, 사진 7-②)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여 있어 거칠다. 내면에는 인화기법으로 점열문과 나비문, 국화문이 시문되었다. 외면에는 점열문이 있고, 귀얄기법으로 백토분장 되었다. 내외면에 빙열이 발생하였다. 현재높이 2.8cm, 굽경 4.8~5.6cm.

⑱ 백자 대접(도면 10-3, 사진 7-⑥)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1/3정도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백색 세사립이 함유되어 거친편이며, 잡물이 섞여있어 기면에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의 색조는 담청색이며, 저연과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고, 색조는 명갈색을 띤다. 저부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태토빛음눈이 2개 확인된다. 내외면에 빙열이 발생하였다. 높이 7.5cm, 복원구경 18.6cm, 복원굽경 5.3~6.3cm

⑲ 백자 종지(도면 10-4, 사진 7-①)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1/2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이나, 내외면에서 흑점이 관찰된다. 회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고, 굽의 접지면에는 세사립이 묻어있다. 굽 내외면에 빙열이 발생하였다. 높이 5.0cm, 복원구경 11.2cm, 복원굽경 5.0cm

⑳ 백자종지(도면 10-5, 사진 7-③)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1/2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이나, 기면에서 흑점이 관찰된다. 유약의 색조는 담청색이며, 굽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빙열은 보이지 않는다. 높이 4.1cm, 복원구경 10.8cm, 복원굽경 3.4~4.0cm

㉑ 백자 저부편(도면 10-6, 사진 7-④)

건물지 북측석렬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이나, 잡물이 섞여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은 담청색으로, 발색은 고르지 못하며, 굽의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내면과 굽의 접지면에서 4개의 태토빛음눈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높이 2.4cm, 굽경 4.5~5.2cm

㉒ 백자 저부편(도면 10-7, 사진 7-⑤)

건물지 북측석렬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이며, 유약은 담청색으로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굽 근처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적갈색을 띤다. 저부 내면에서 2개의 태토빛음눈이 관찰된다. 현재높이 2.5cm, 복원굽경 4.7~6.2cm

㉓ 철제슬편(도면 11, 사진 6-⑥)

철제슬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구순은 안으로 꺾여 있고 동체부는 비교적 곧게 내려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높이 8.6cm, 복원구경 34.4cm, 두께 0.4cm

2. 1호 담장지

1) 유구(도면 12, 사진 8~10)

1호 담장지는 건물지에서 동쪽으로 22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동면구릉의 하단부의 평지와 접하는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담장지의 주축은 남북방향이며 동쪽으로 18°기울어져 있다. 평면형태는 ‘ㄱ’자형으로 남북 17m, 동서방향으로 4m가 잔존하며, 폭은 120~150cm이다. 처음 노출 당시 담장 안쪽으로 돌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담장석렬 상단의 돌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으로 경사가 져 있는 부분에도 석렬이 이어져 있어, 자연지형을 따라 담장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으로 석렬이 이어지는 부분은 분묘가 위치하여 조사를 할수 있었으나, 구릉의 정상부와 인접해있고 지형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더이상 석렬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 끝부분의 담장안쪽으로 이형의 석열이 담장과 중복되어 북에서 동으로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담장 바깥으로는 기와와 돌이 세워져 있는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담장 중앙의 안쪽으로 배수로가 확인되었고, 담장의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석렬이 꺾이는 곳에 담장부재 1개가 돌출된 부분이 있다. 담장은 2~3단까지 남아있는데, 1단과 3단은 바깥면에 맞추어 쌓았으며, 2단은 20~30cm정도 들어 쌓았다. 축조방법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직경 30~40cm의 할석으로 양면을 쌓고, 내부는 10~20cm의 할석과 흙을 혼합하여 채웠다. 동서방향 석렬은 4m 가량만 잔존하는데, 바깥쪽단에 불상대좌가 파손된 채 담장의 부재로 끼워져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배수로는 담장석렬의 중앙에 위치하며 안쪽으로 바로 붙여서 조성하였다. 축조방법은 할석과 천석을 혼용하여 황갈색사질점토층을 파서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 형태로 남아 있으며, 배수로와 인접해 있는 담장의 일부를 터서 물이 잘 빠지도록 설치하였다. 규모는 잔존길이 550cm, 폭 52cm이며 내부에는 사질토가 들어차 있다. 아랫쪽 석렬은 2~3단, 윗쪽은 1단만 잔존하고 있다. 지형이 서쪽으로 경사져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서로 배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북편으로 담장과 중복된 채로 확인된 이형석렬은 약간의 곡선을 이루며 북쪽으로 연결되는데, 담장의 기초석보다는 조금 작은 돌을 이용하여 영성하게 쌓은 모습이 확인된다. 담장과는 성격이 다른 후대에 중복된 시설로 보인다.

유물은 명문기와편, 백자편 등이 주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① 암키와편(도면 13-1, 사진 16-⑤)

회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단사선문이 타날되어 있고 '卍' 명문 2개가 방박을 두고 양각되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고 빗질로 정면한 흔적도 관찰된다. 상단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는 고운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2.3cm, 현폭 8.4cm, 두께 2.0cm

② 암키와편(도면 13-2, 사진 13-⑤)

회청색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玄化寺' 명문이 방박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으며, 寺자는 일부분만 확인된다. 내면은 포목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6.5cm, 현폭 6.6cm, 두께 1.7cm

③ 암키와편(도면 13-3, 사진 16-⑥)

연백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癸', '寺築(?)完', '癸', '築(?)完' 명문이 방박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측면 내측으로 분할도흔이 나 있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4.7cm, 현폭 12.5cm, 두께 2.3cm

④ 암키와편(도면 13-4, 사진 14-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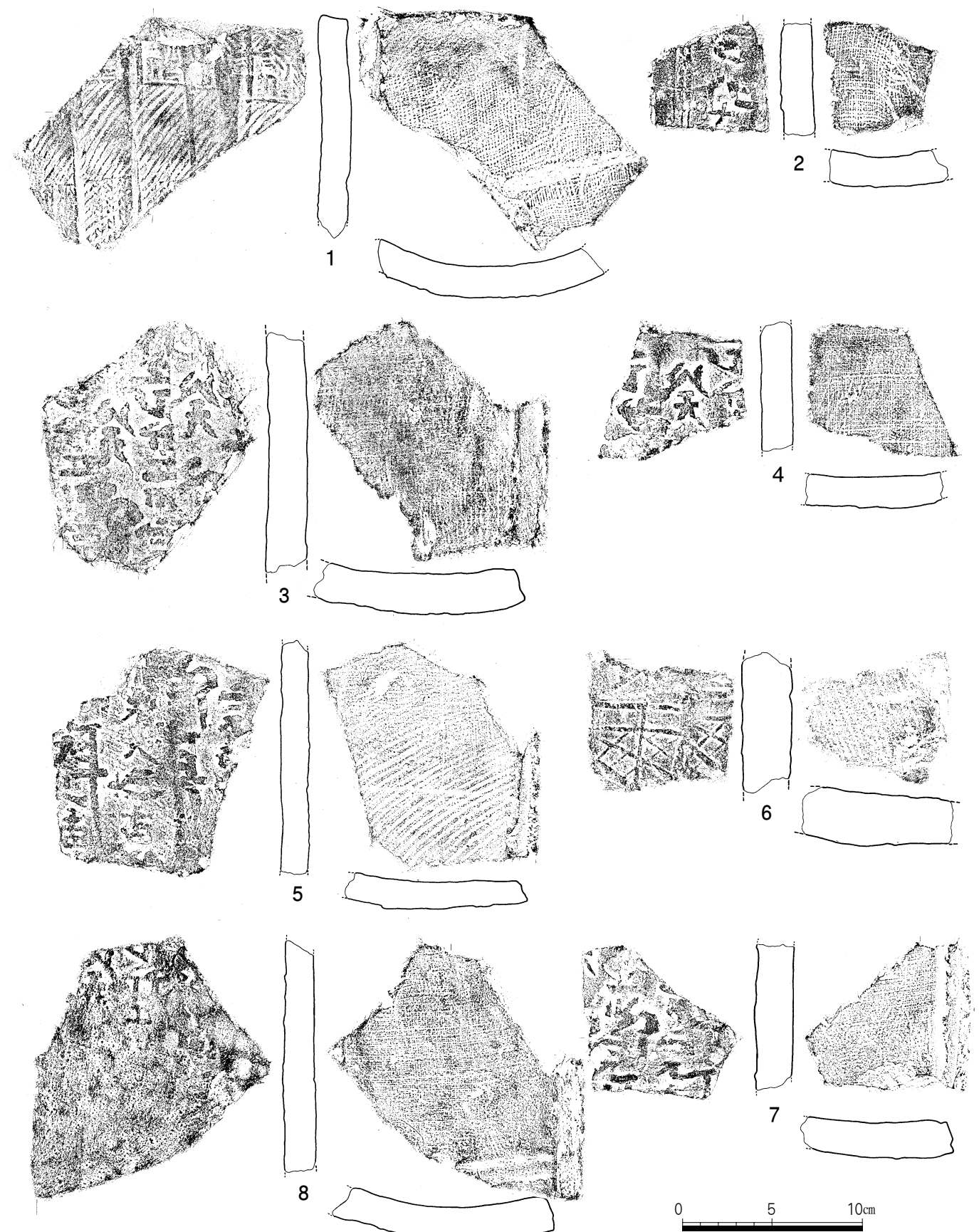
회색 경질와편으로, 등면은 '癸' 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고, 좌우로 몇 개의 명문이 확인되지만 판독이 불가능하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되며, 포목을 벗긴후 빗질 정면한 흔적이 대각선으로 확인된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8.3cm, 현폭 8.9cm, 두께 1.7cm

⑤ 암키와편(도면 13-5, 사진 13-①)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完', '卯年', '完念惠', '念惠(?)' 명문이 방박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내면에는 연철흔이 확인되며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포목을 벗긴후 대각선으로 빗질 정면한 모습이 확인된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2/3 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3.3cm, 현폭 11.1cm, 두께 1.5cm

⑥ 암키와편(도면 13-6, 사진 14-④)

회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북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대각선으로 빗질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8.8cm, 현폭 8.6cm, 두께 3.0cm



도면 13. 1호 담장지 출토유물 ①

⑦ 암키와편(도면 13-7, 사진 13-④)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完', '卯', '完' 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고 분할계선도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8.4cm, 현폭 8.9cm, 두께 2.1cm

⑧ 암키와편(도면 13-8, 사진 13-②)

연갈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完', 築(?), '癸', '完', 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윤철흔이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3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3.1cm, 현폭 12.8cm, 두께 1.9cm

⑨ 암키와편(도면 14-1, 사진 13-⑥)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化寺', '癸' 명문이 방박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대각선으로 빗질 정면한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9.8cm, 현폭 11.2cm, 두께 1.6cm

⑩ 암키와편(도면 14-2, 사진 16-③)

회백색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癸' 명문이 방박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7.5cm, 현폭 8.4cm, 두께 1.6cm

⑪ 암키와편(도면 14-3, 사진 15-③)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서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 '完', '癸卯', '築(?)完', '癸卯年', '癸卯' 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분할계선도 남아 있다. 대각선으로 빗질 정면하였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3.7cm, 현폭 11.1cm, 두께 2.0cm

⑫ 암키와편(도면 14-4, 사진 14-①)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癸', '寺', '癸', '寺', 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이 확인된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3 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5.2cm, 현폭 10.0cm, 두께 1.9cm

⑬ 암키와편(도면 14-5, 사진 14-②)

회백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癸卯', '寺築(?)完', '癸卯' 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2.3cm, 현폭 8.4cm, 두께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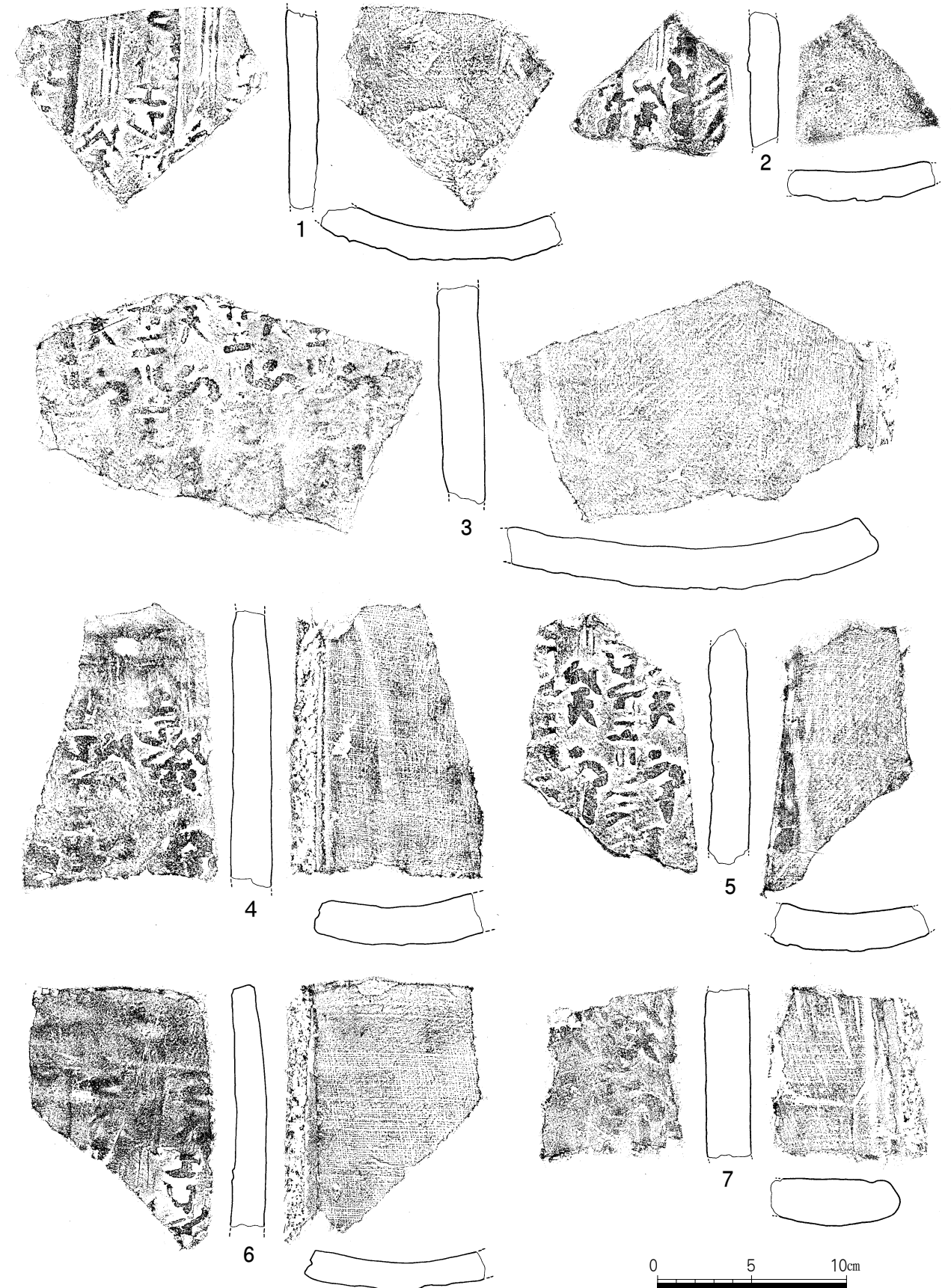
⑭ 암키와편(도면 14-6, 사진 13-③)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玄化寺' '玄' 명문이 방박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윤철흔이 확인된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3 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4.3cm, 현폭 9.3cm, 두께 1.6cm

⑮ 암키와편(도면 14-7, 사진 16-④)

회백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癸卯', 명문이 희미하게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으며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8.1cm, 현폭 6.5cm, 두께 2.4cm

⑯ 암키와편(도면 15-1, 사진15-①)



도면 14. 1호 담장지 출토유물 ②

회색의 경질외편으로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화문, 중첩방곽문으로 시문된 복합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윤철흔이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5.3cm, 현폭 15.1cm, 두께 2.4cm

⑰ 암키와편(도면 15-7, 사진 15-②)

회색의 경질외편으로 1호담장지 북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7.3cm, 현폭 10.1cm, 두께 2.0cm

⑱ 암키와편(도면 15-8, 사진 15-⑤)

회색의 경질외편으로 1호담장지 서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동심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 연철흔, 함철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3.7cm, 현폭 11.1cm, 두께 2.0cm

⑲ 암키와편(도면 16-1, 사진 16-②)

회색의 경질외편으로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변형어골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연철흔도 일부 관찰된다. 태토는 사립과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5.3cm, 현폭 15.1cm, 두께 2.4cm

⑳ 암키와편(도면 16-2, 사진 16-①)

회청색의 경질외편으로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사격자문, 방곽문등의 복합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세로로 빗질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3.9cm, 현폭 14.1cm, 두께 2.4cm

㉑ 암키와편(도면 19-1, 사진 14-③)

회색의 경질외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기하학문이 타날되어 있고 ‘寺’자 명문 윗부분이 방곽을 두고 양각되어 있다. 상단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8.8cm, 현폭 8.6cm, 두께 3.0cm

㉒ 암키와편(도면 19-3, 사진 14-⑥)

회백색의 경질외편으로 1호담장지 북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복합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물손질흔이 있다. 내면에는 연철흔이 확인되며 세로로 빗질 정면하였다. 측면에는 내측으로 분할도흔이 1/3 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5.2cm, 현폭 16.3cm, 두께 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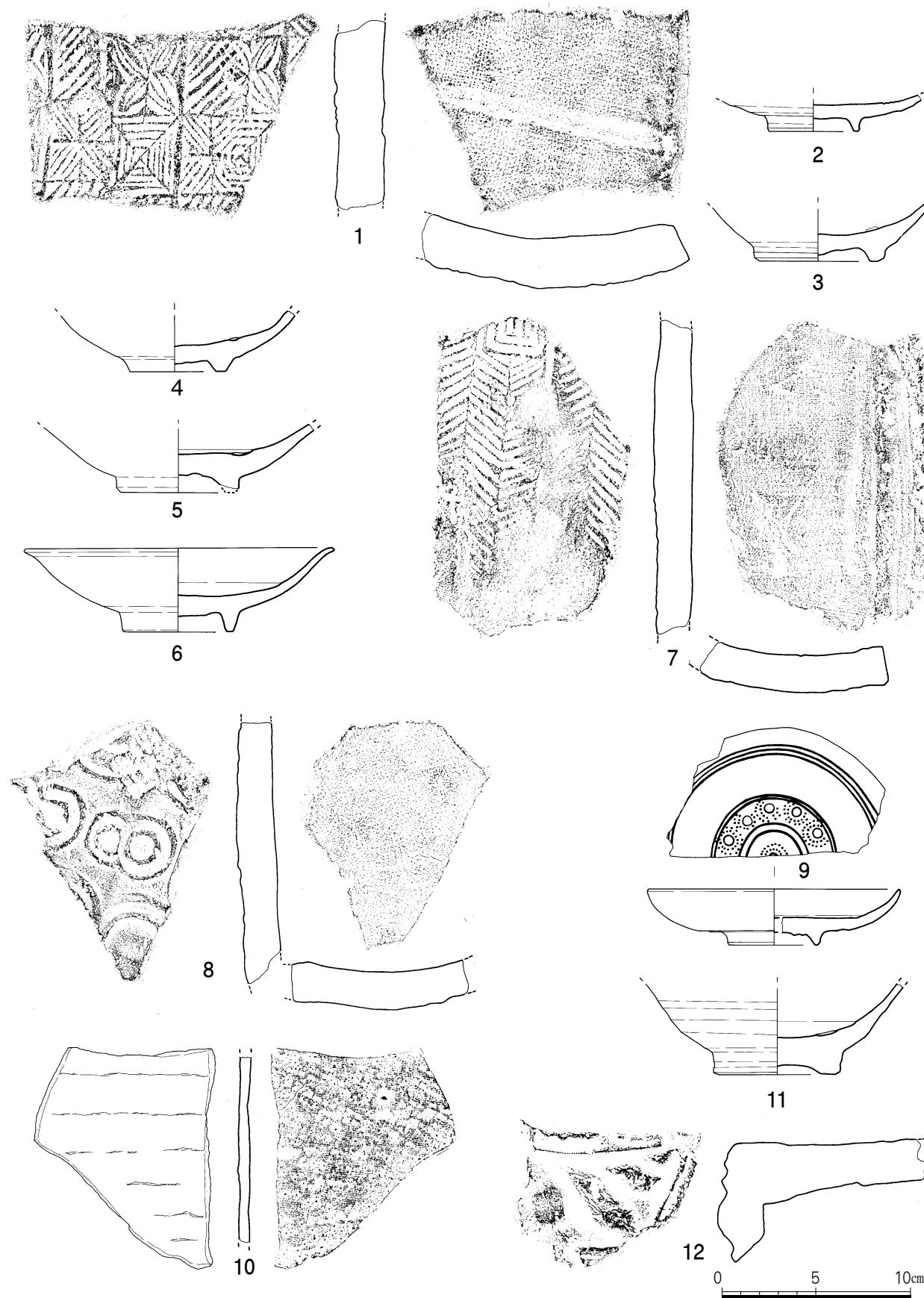
㉓ 수키와편(도면 16-3, 사진 15-④)

미구가 형성되어 있는 유단식 회색 경질외편으로 일부 결실되었다.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선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양측면에 분할도흔이 1/2정도 확인되며 태토는 고운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20.0cm, 현폭 16.0cm, 두께 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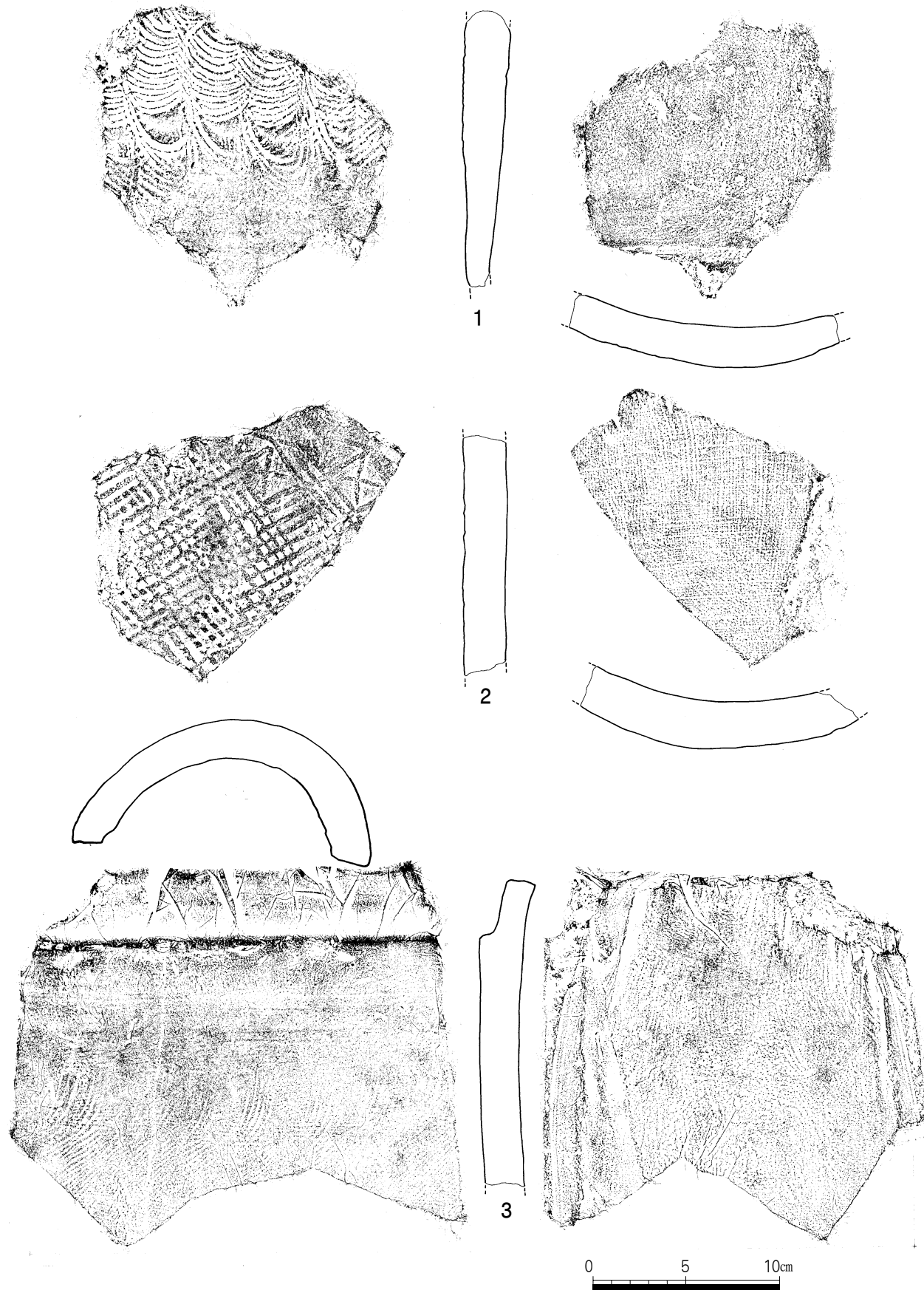
㉔ 암막새편(도면 15-12, 사진 16-⑦)

회청색의 경질막새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문양은 연화문으로 보이며 턱면이 형성되어 있는 유악식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현고 7.2cm, 현폭 10.6cm, 두께 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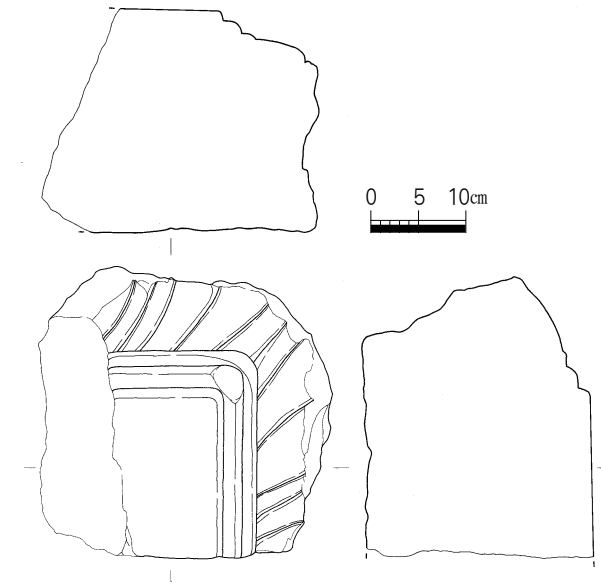
㉕ 토기호편(도면 15-10, 사진 17-⑦)



도면 15. 1호 담장지 출토유물 ③



도면 16. 1호 담장지 출토유물 ④



도면 17. 1호 담장지 출토 불상대좌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고, 테쌍기와 격자타날흔적이 남아있다. 내외면에는 녹갈색 유약이 시유되어 광택이 있다. 현재길이 11.6cm

㉔ 분청사기 접시(도면 15-9, 사진 17-①)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고, 1/2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신부 내면에는 인화기법으로 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유약은 굽 외면과 저연 일부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색조는 암갈색을 띤다. 내외면에 병열이 발생하였다. 높이 3.0cm, 복원구경 13.4cm, 복원굽경 4.4~4.8cm

㉕ 분청사기 저부편(도면 15-2, 사진 18-①)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백색 세사립이 섞여있어 거친편이다. 침선문은 얇게 시문되었고, 발색이 고르지 못하며, 기면이 산화되었다. 현재높이 2.0cm, 굽경 4.3~4.8cm

㉖ 분청사기 저부편(도면 15-4, 사진 18-②)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으며, 기포가 발생하여 기벽이 벌어졌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귀얄기법으로 분장되었다. 내면에서는 태토빛음눈이 3개 관찰되며, 굽의 접지면의 색조는 갈색을 띤다. 현재높이 3.0cm, 굽경 5.2cm

㉗ 백자 접시(도면 15-6, 사진 17-③)

1호 담장지에서 출토되었고, 신부의 1/2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했으며, 유약의 색조는 담회색으로,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굽의 접지면에는 백색 세사립이 붙어있으며, 저부 내면에서도 약간 관찰된다. 높이 4.5cm, 복원구경 16.7cm, 굽경 5.2~5.8cm

㉘ 백자저부편(도면 15-3, 사진 18-③)

1호 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이 다량으로 섞여 있으며, 속심의 색조는 명황색이다. 유약은 갈색을 띠며, 기벽에서 박리되고 있다. 저부와 굽에는 4개의 태토 빛음눈이 붙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높이 3.1cm, 굽경 5.6~7.0cm

㉓ 백자 저부편(도면 15-5, 사진 18-④)

1호 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섞여 있고, 담청색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굽의 내면에는 묻어있지 않다. 내저원각이 뚜렷하며, 내면과 굽에 5개의 태토빚음눈이 붙었던 흔적이 관찰되는데, 굽의 일부는 떨어져 나갔다. 현재높이 3.7cm, 굽경 5.0~6.2cm

㉔ 백자 저부편(도면 15-11, 사진 18-⑥)

1호 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여있어 거칠며, 유약의 용융상태는 불량하여 기면에서 떨어져 나갔다. 굽 근처에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으며, 색조는 명갈색을 띤다. 저부 내면에는 4개의 태토빚음눈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높이 4.7cm, 굽경 4.9~6.8cm

㉕ 불상대좌(도면 17, 사진 18-⑦)

화강암재 연화문 불상대좌로 1호 담장지 동서열에 파손된채로 끼워져 있었다. 평면형태는 파악하기 힘들며 모서리판도 확실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하대석은 복련이며 3단의 괴임대를 각출하였다. 복련의 연화문 양은 희미하게 남아 있어 연판수는 파악하기 힘들다. 현길이 29.5cm, 현폭 29.3cm, 두께 23.1cm

3. 2호 담장지

1) 유구(도면 18, 사진 12)

2호 담장지는 1호 담장지에서 남동쪽으로 30m 떨어져 위치하며, 지표하 약 20cm의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남북 10m, 동서 20m 정도만이 잔존하며, 폭은 100~150cm로 최고 1~2단 정도 남아 있다. 2호 담장지는 1호 담장지에 비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동서담장은 비교적 편평한 지면에 조성되어 있는데 반해, 남북 담장은 경사면에 조성되어 석렬이 불규칙하게 이어지고 있다. 동쪽방향 끝으로 석렬이 끊겨 있는데 이 곳부터 경사가 급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지형을 담장 대신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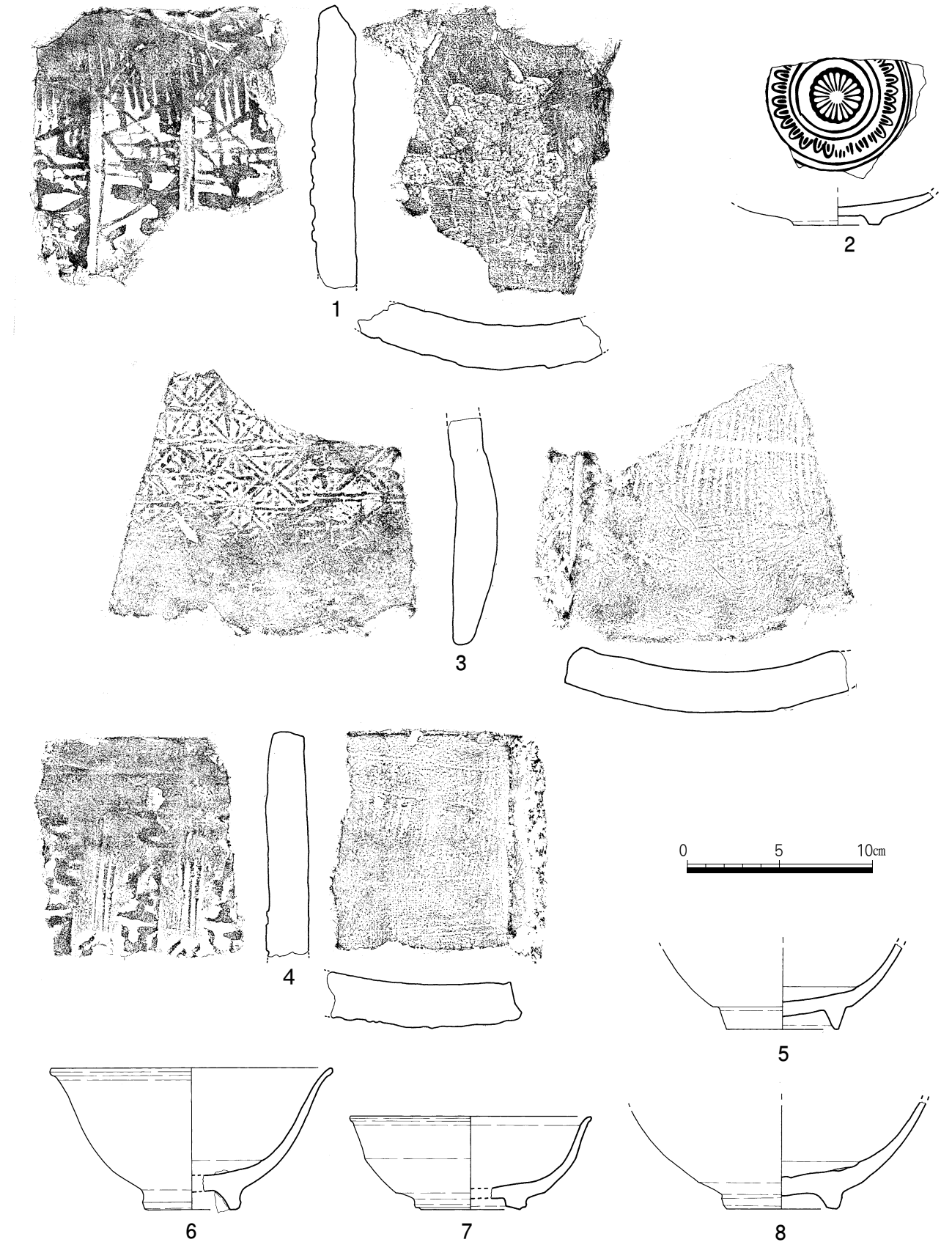
담장 안쪽으로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담장의 잔존상태는 최고 1~2단까지 남아 있으며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 쌓았다. 축조방법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직경 30~40cm의 할석으로 양면을 쌓고, 내부는 10~20cm의 할석과 흙을 혼합하여 채웠다. 유물은 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① 암키와편(도면 19-4, 사진 16-⑧)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2호 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寺’ ‘玄化寺’ 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으며 상단은 물문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이 확인되며, 분할계선도 일부 남아있다. 상단은 빗질로 정면하였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굵은 석립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2.3cm, 현폭 10.3cm, 두께 2.3cm

② 청자 중지(도면 19-7, 사진 17-⑥)



도면 19. 1호(1, 3) · 2호 담장지(2, 4~8) 출토유물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고, 1/2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세사립과 잡물이 섞여있고, 기면에는 흑점이 발생하였다. 유약은 회녹색이며, 저연과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고, 색조는 갈색을 띤다. 내외면에 빙열이 가득하다. 높이 5.1cm, 복원구경 13.2cm, 복원굽경 3.8~5.4cm

③ 분청사기 접시편(도면 19-2, 사진 17-④)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세사립과 잡물이 섞여 있어 거칠다. 내면에는 인화기법으로 시문된 국화문을 중심으로 문양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약은 회녹색으로 굽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현재높이 1.5cm, 굽경 4.8cm

④ 백자 대접(도면 19-6, 사진 17-⑤)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고, 1/3정도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으나, 잡물이 섞여있어 기면에는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은 담회색이며, 굽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내면에서는 태토빛 음눈이 2개가 관찰되며, 굽에는 둥글게 빛은 태토빛음눈이 1개 붙어있다. 내외면에 빙열이 가득하다. 높이 7.8cm, 복원구경 15.4cm, 복원굽경 4.1~5.2cm

⑤ 백자 저부편(도면 19-5, 사진 18-⑤)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의 1/2정도만 남아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으나, 잡물이 섞여 기면에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은 회색이며,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흔적이 남아있다. 외면에 빙열이 발생하였다. 현재높이 4.5cm, 복원굽경 5.7~6.1cm

⑥ 백자 저부편(도면 19-8, 사진 17-②)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기면에는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은 회색이며, 굽 근처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색조는 갈색을 띤다. 저부 내면에서는 태토빛음눈이 붙었던 흔적이 6곳에 남아있다. 내외면에 빙열이 발생하였다. 현재높이 5.9cm, 굽경 4.8~6.1cm

V. 考察

1. 遺構와 遺物의 檢討

본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중복된 건물지 2동, 담장지 2개소로 조선시대 사지로 추정된다. 건물지에 비해서 담장석렬은 비교적 그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건물지는 2동이 중복되어 있으나 출토유물로 보았을때 시기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의 북쪽으로 건물지의 외곽을 감싸는 듯한 석렬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북쪽이 경사가 심한 지형이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담장대신 시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계시설을 나타내는 외곽 울타리로 판단된다.

1호건물지는 적십의 양상으로 보아 정면 1칸 외에 다른 구조는 알 수 없으며, 부수시설인 아궁이 및 고래시설은 흔적만 일부 남아 있고 상부구조도 거의 유실되었다. 2호건물지는 정면 1칸만 남아 있으며 오른쪽 적십은 1호 건물지의 고래시설과 중복되어 있는 양상으로 보아 1호 건물지보다 높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기

단옆에서 확인되는 와적층은 기단 상단의 기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재 노출된 유구의 양상만으로 보아 1·2호건물지의 성격은 밝히기 힘들지만,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기와에서 ‘玄化寺’ 명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지로 판단된다.

담장지는 2개소가 확인되었는데, 1호 담장지는 남북 17m, 2호 담장지는 동서방향으로 20m 정도만이 잔존한다. 1호담장지와 건물지는 현재 약 20m의 거리를 두고 있고, 건물지를 바라보고 있는 동서담장 석렬이 4m만 잔존 하고 있어 건물지를 포함한 전체양상은 파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동서담장석렬이 건물지를 둘러싼다고 추정해볼 때 전체배치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장과 건물지에서 ‘玄化寺’ 명문기와의가 모두 출토되기 때문에 1호 담장지와 건물지는 같은 사역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와문양에 있어서 1호 담장지가 건물지보다 이른 것으로 보아, 시기차이를 두고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호 담장지는 1호담장지와 약 24m 떨어져 있고 안쪽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건물지는 확인할수 없었으나, 일부 석렬이 노출되고 기와편이 출토되어 건물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호 담장지와 담장구조, 기와의 명문, 유물의 양상도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寺域에 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기와류, 자기류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불상대좌가 1호 담장지에서 1기 확인되었다. 기와류는 암막새와, 명문기와를 비롯해 각종 문양이 시문된 평기와가 출토되었다. 명문은 주로 암키와에서 나타나며, 방곽으로 나누어 左書로 양각하였다. 내용은 ‘玄化寺’, ‘癸卯年’, ‘卍’, ‘完念惠’, ‘寺築(?)’ 명문이 확인되며, 干支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癸卯년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명문의 내용은 확인된 자를 조합해보면 ‘癸卯年’, ‘玄化寺築(?)完念惠用’²⁶⁾ 으로 ‘계묘년에 현화사 축성(?)이 완료되니 은혜롭게 사용되기를 염원한다.’는 내용의 跋願文으로 추정된다. 기와의 문양은 거치문, 변형어골문, 사격자문, 방곽문, 청해파문, 복합문, 동심원문 등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였다. 특히, 1호담장지에서 출토된 어골문, 변형어골문 등의 문양이 시문된 기와는 고려말에서 조선전기에 주로 유행하는 형식으로 보인다²⁷⁾.

자기는 주로 분청사기, 백자가 출토되며 청자도 일부 확인된다. 분청사기는 인화기법, 귀얄기법, 음각기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화문, 점열문, 나비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었다. 기형은 대접, 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백자는 대접, 접시, 종지 등의 기종이 주류를 이룬다. 제작시기는 분청사기의 시문양상과 백자의 기형으로 보았을때 15~16세기에 주로 속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특히 분청사기는 최고 번성기인 15세기에 주로 유행하는 형식으로 판단된다²⁸⁾.

2. 遺構의 配置와 築造方法에 對한 檢討

본 유적은 교란·파괴가 심하여 일부 유구만 남아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작은 규모의 건물지 2기만 확인된 상태고, 나머지는 담장석렬 및 배수로, 이형유구들이다. 이들 가운데 담장석렬과 배수로, 이형유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전체 배치와 건물지를 개략해서 살펴보고, 담장석렬과 배수로, 이형유구의

26) ‘用’자는 발굴조사시 출토된 기와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표조사시 수습된 기와에 ‘惠用’ 명문이 양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진18-⑧)

27) 徐五善, 『韓國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년.

28) 姜敬淑, 『韓國陶磁史』, 일지사, 1995.

위치 및 축조방법을 중심으로 본 유적을 이해하려 한다.

1) 全體 配置 및 遺蹟의 性格

발굴 조사된 유구는 전체 1,400여 평 되는 조사 구역에서 등고선으로 대략 96~102m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능선을 따라 놓여져 있는데, 조사 구역내에 교란 및 파괴가 심한 지역이 많아 유구들간의 관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다시말해 각 유구들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비해, 이들을 연계해 줄 매개 유구가 없다.

예를 들면 1호 건물지·2호 건물지와 1호담장지간의 떨어진 동서방향 거리는 약 20m에 달하며, 1호 담장지와 2호 담장지간의 떨어진 남북방향 거리는 약 24m에 달한다(도면6 참조). 그래서 1호 건물지·2호 건물지가 1호담장지에 둘러싸인 건물지일지 의문이다. 이는 1호 담장지 가운데 동서방향 담장석열이 서쪽으로 계속 연장되어 건물지를 둘러싸고 영역을 조성해 준다고 볼 때 매우 긴 장방형의 영역을 이루게 된다. 이 안에 축조시기가 다른 1호 건물지·2호 건물지와 더불어 다른 건물지들이 구성되었다고 추정해 볼 때 전체배치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동서방향 담장석열이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좀더 남쪽으로 확장된 영역을 구성했을 수도 있고, 남북방향 담장석열보다 후대에 덧붙여져 축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앞서의 가정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드러난 유구 상태로는 건물지와 담장석열간의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밖에 2호 담장지는 1호 담장지와 별개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2호 담장지로 구획되는 공간에서는 2기의 민묘와 그 안에서 석열이 일부 노출되어 건물지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나 어떤 성격의 건물지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건물지와 담장석열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는 명문와가 출토됨에 따라 하나의 성격을 지닌 건물군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다만 명문와를 제외한 기타 유물을 통해 볼 때, 각 유구가 모두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1호 담장지는 고려말~조선초기 건물지 및 2호 담장지는 조선전기의 유구로 추정된다. 이는 선대의 유구인 1호담장지와는 별개로 후대에 1호 건물지, 2호 건물지가 조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이후 사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남동쪽에 2호 담장지로 둘러싸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2) 담장 遺構와 排水路, 異形遺構 考察

담장 유구와 배수로, 이형유구의 축조배경은 영역을 구분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물과 토사로부터 보호·제어하려는 목적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1호담장지의 후면 즉 동쪽이 경사져 있는 점, 1호담장지와 배수로간의 간격이 채 30cm도 안되게 너무 근접해 있는 점, 하나의 담장석열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물러쌓은 정도가 다른 점, 1호담장지의 뒤쪽에 5m×1m 정도되는 범위에 걸쳐 얇은 판석을 곳곳에 세워진 이형유구를 들 수 있다(도면7 참조). 여기서 이형유구는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위적으로 10cm 안팎의 할석을 여러 겹으로 세워서 꽂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은 북쪽경사면과 동쪽경사면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토사로부터 담장을 보호해야 했기에, 한면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제어해야하는 다른 담장에 비해 좀더 견고한 장치를 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주는 것은 1호담장지의 정리전 노출 상태이다. 노출 당시 이형유구의 남쪽면부터 담장석열 안쪽으

로 돌들이 상당 범위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곧 무너져내린 담장 유구가 담장석열 바깥쪽으로도 나왔다면 이러한 논리가 맞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형유구가 설치되지 않은 담장석열의 안쪽으로 상당량의 담장석열이 무너져내렸다. 이는 이형유구가 무너진 담장석열의 일부가 아닌 유속 제어장치이며, 본 유적이 눈에 보이는 경사도에 비해 수압과 토압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좀더 세분해서 각 유구별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호 담장지와 2호 담장지의 축조방법은 기본적으로 20-30cm 정도되는 할석을 가지고 양단에 바깥면을 맞추어 막돌허튼층쌓기를 하였고, 그 사이는 10cm 안팎의 할석 및 기와를 채우는 방법을 채택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호 담장지의 축조방법이다. 이는 위치에 따라 뒤로 물러쌓은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또한 후면에서 흐르는 유수를 제어하기 위한 방편 또는 의장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두번째 층은 첫번째 층의 동일 선상에 올려쌓았다. 둘째, 두번째 층이 첫번째 층보다 10-15cm정도(반단 정도) 뒤로 물러 쌓았다. 셋째, 두번째 층이 첫번째 층보다 20cm 정도(한단 정도) 뒤로 물러 쌓았는데, 이때 첫번째 층과 두번째 층 사이에 두께가 얇은 돌을 끼워 넣어 구조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는 크게 물러쌓은 경우와 물러쌓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후면에 위치하여 보이지 않으며 <이형유구>가 놓이지 않은 바깥쪽 담장석열은 반단 물러 쌓은 반면, 안쪽 담장석열 수압이나 토압을 덜 받는 부분이며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의장적인 면이 고려되어 똑바르게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말해 뒤로 물러쌓은 담장의 경우 땅하고 맞닿는 면이 더 넓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례해서 마찰력 즉, 수평으로 작용하는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물러쌓지 않은 경우는 수압이나 토압이 작용할 때 그 담장 전체가 거의 동일하게 힘을 전달받지만, 물러쌓은 경우는 최하층에서 힘을 받아 어느 정도 상쇄·분산시킨 후 그 위층에 전달하기 때문에 담장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배수로는 남북방향으로 남아있으며 서쪽으로 꺾여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볼 때, 담장석열과 평행으로 가다가 양단에서 경사를 따라 서쪽으로 연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측면은 일정 깊이 만큼 파고 그 위에 10-20cm 내외의 할석을 1단으로 열을 지어 놓았고, 서측면은 10cm 내외의 할석을 2, 3단 정도 쌓아 동측면과 동일한 레벨을 맞추어 열을 짓고 있다. 특히 배수로 석열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견고하게 쌓은 것을 볼 수 있다. 곧 꺾인 부분을 보면 동측면은 다른 부분보다 큰 할석을 사용하여 넓은 면이 배수로의 측면이 되도록 놓고 서측면은 3단으로 된 석열을 조밀하게 쌓아 물살에 페이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담장과 배수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본 유적의 경우 배수로가 1호담장지에 매우 근접하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담장밑으로 들어오는 유수의 양이 많아 좀더 가까이에서 그 물을 받아 배수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원형석열유구는 1호담장지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곡선을 이루며 돌아가고 있으며, 현재 10-20cm 내외의 할석들이 1단 정도 경사면을 따라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유구는 1호담장지보다 후대에 축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성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본 유적은 명문와를 통해 볼 때 사지로 보이지만, 그 구성상 전체적인 계획하에 정연하게 축조되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하기 적합하게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모습이 민가에 가까운 소담한 구성을 한 조그만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유적에서 보이는 1호 담장지, 배수로, 이형유구 등이 다른 유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며, 여러 가능성을 살

펴 그 축조배경을 추정해보았다. 이는 추후 더 많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VII. 맺음말

이번 조사는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로 진행되었다. 조사이전 이미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원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건물지의 구조와 같은 근본적인 성격을 구명하지 못하고 발굴을 종료하였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역사고고학적 정보를 얻었다.

우선, 본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볼 때, 그 성격은 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와와 자기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미루어, 그 중심연대는 15세기 경이며, 사찰명은 玄化寺라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둘째로, 본 사찰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나, 龍仁縣의 구읍취락에 속하는 사찰로 추정되어 조선시대 읍치의 건물배치를 살피는 데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용인현의 구읍치인 현재의 용인시 구성면소재지 일대가 최근 택지개발로 수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와요지, 생산유적, 건물지, 고려시대~조선시대 민묘, 관방유적 등이 확인된 사실과 연계할 때, 이번 조사에서의 사찰건물지의 발견은 또 다른 구읍취락의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런 고고학에서의 발굴조사 성과와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읍치에 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조선전기 읍치에 관한 중요한 건축사적 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담장지 2기는 조선전기 일반건축에서의 담장의 축조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자료라 평가된다. 특히, 그 구조가 토사와 유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추후 다른 자료의 축적과 함께, 담장지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사 진



사진 1. 유적 원경(①), 조사전 전경(②)



사진 2. 건물지 · 1호 담장지 전경(①), 건물지 전경(②)



사진 3. 건물지 조사중 전경(①), 건물지 조사완료후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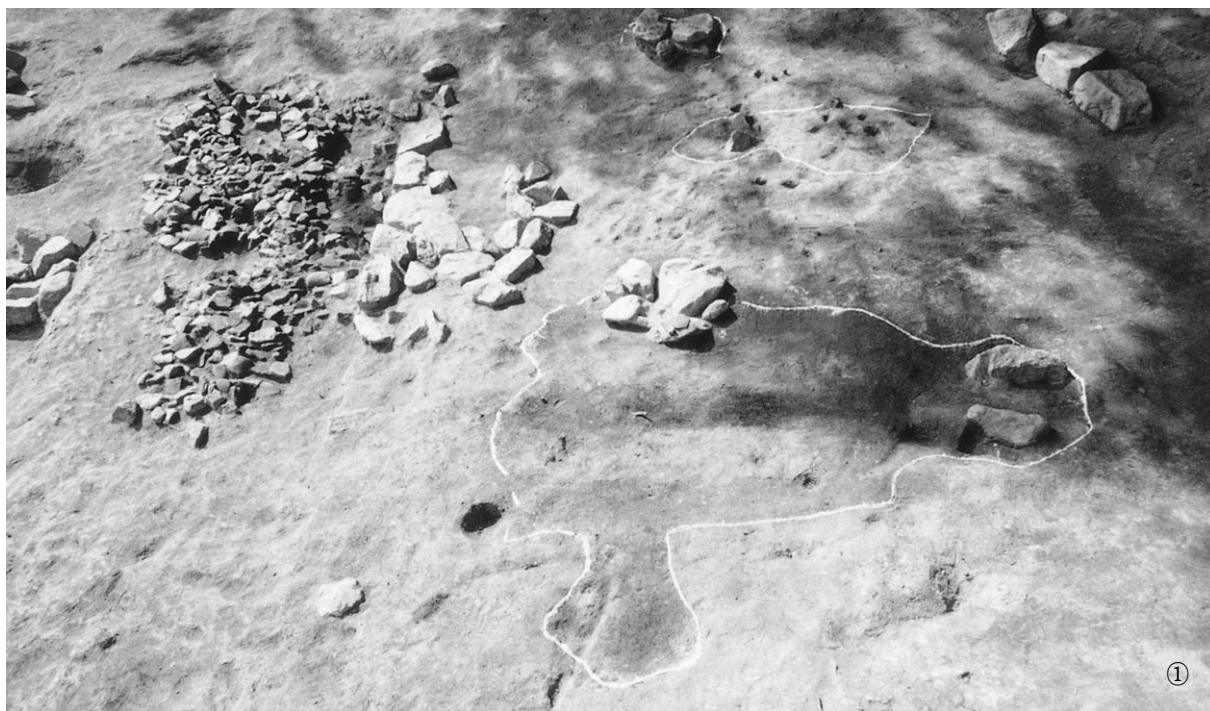


사진 4. 건물지 전경 및 건물지 아궁이시설(①), 건물지 남북 토층도(②), 건물지 아궁이 시설(③), 건물지 적심세부(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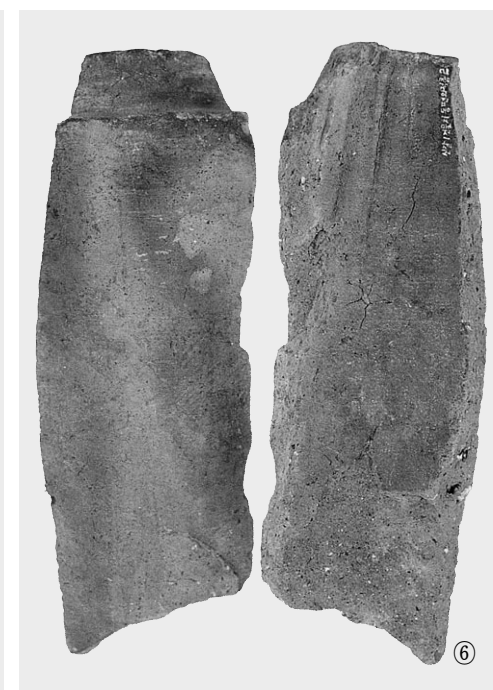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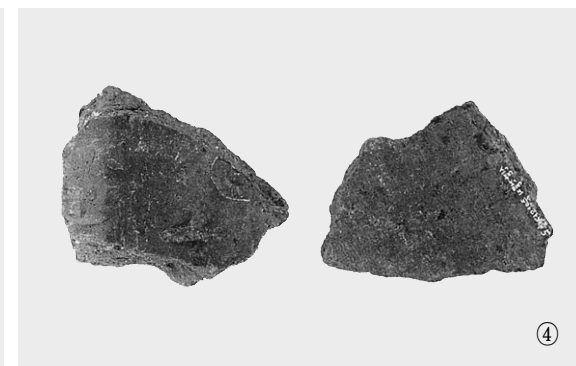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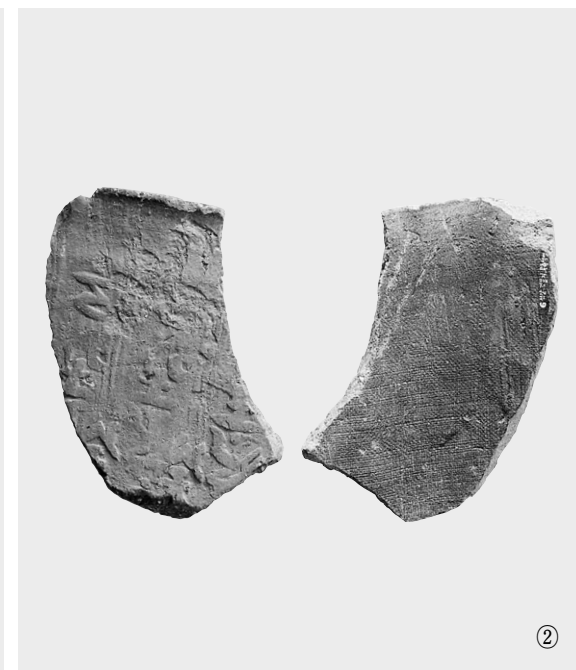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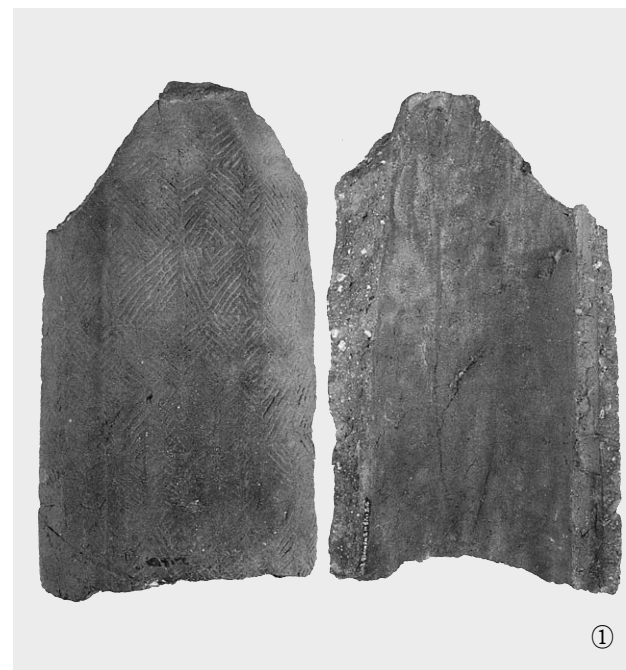


사진 5. 건물지 출토유물 문양기와(①, ③, ⑤, ⑥), 명문기와(②,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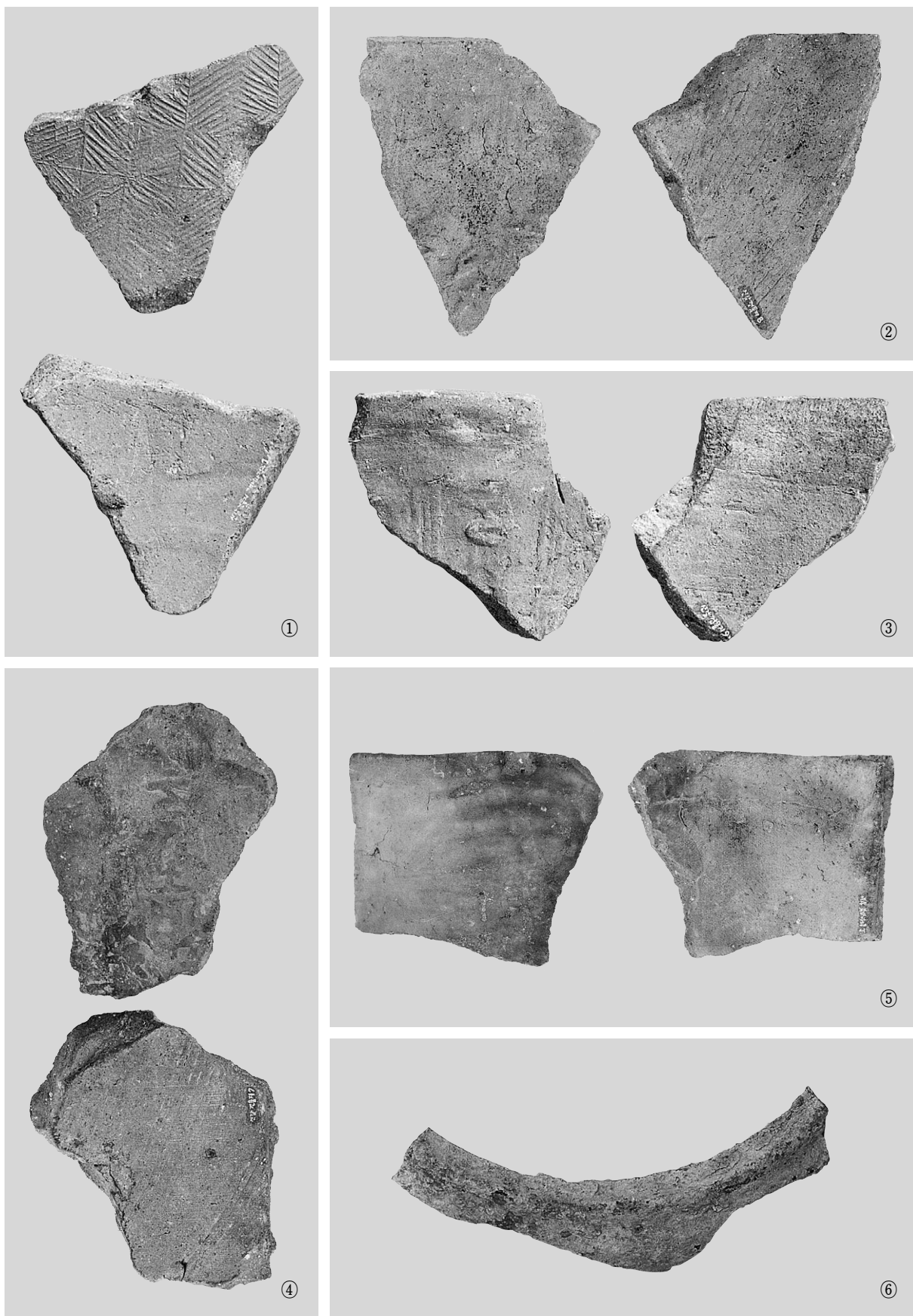


사진 6. 건물지 출토유물, 문양기와(①, ⑤), 명문기와(②, ④), 철슬편(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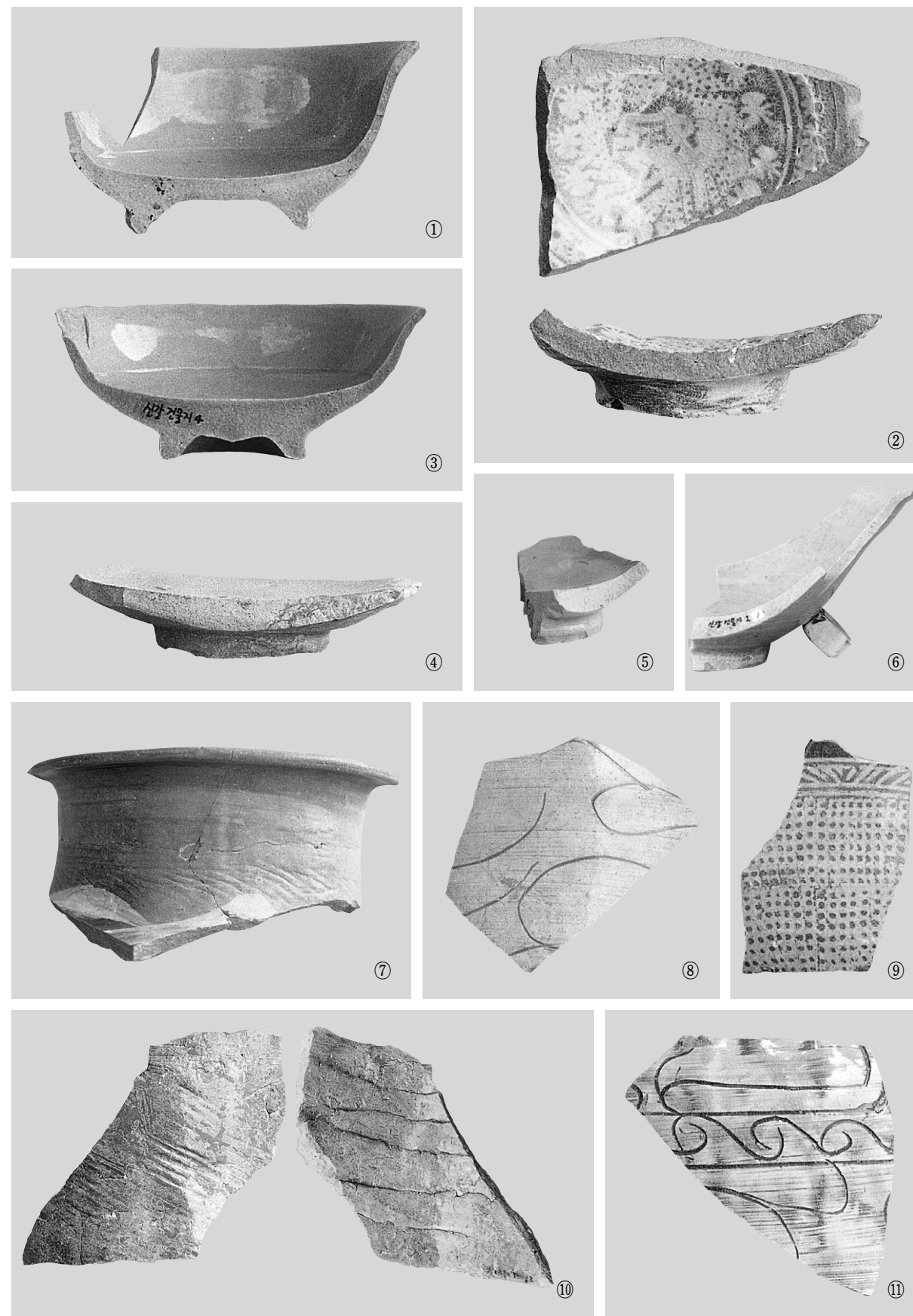


사진 7. 건물지 출토유물(자기류)



사진 8. 1호 담장지 조사전 상태(①), 트렌치내 유구 노출광경(②), 1호 담장지 내부 조사중 상태(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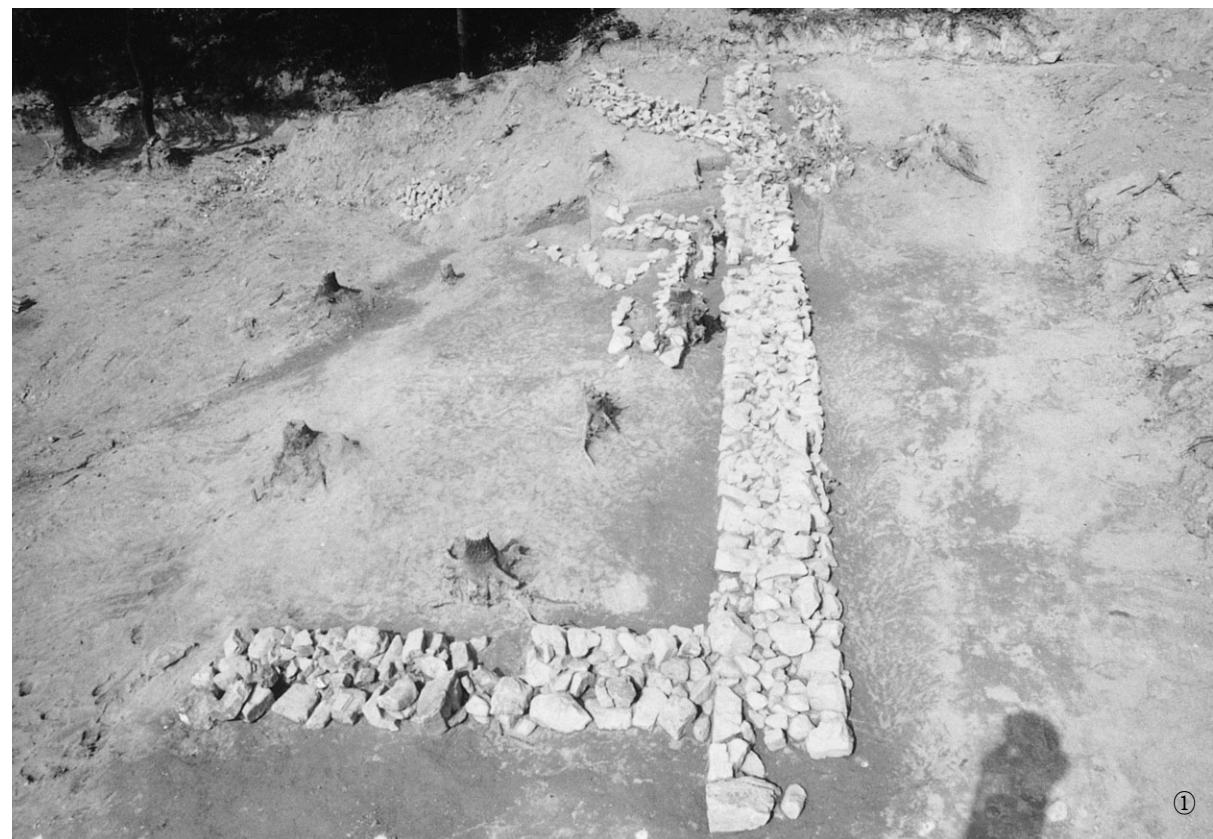


사진 9. 1호 담장지 조사완료후 전경(①), 남북담장석렬 전경(②), 남동장벽 모서리 상태(③), 유물출토상태(④)



사진 10. 1호 담장지내 배수로 전경(①) 및 1호 담장지 전경(북 → 남)(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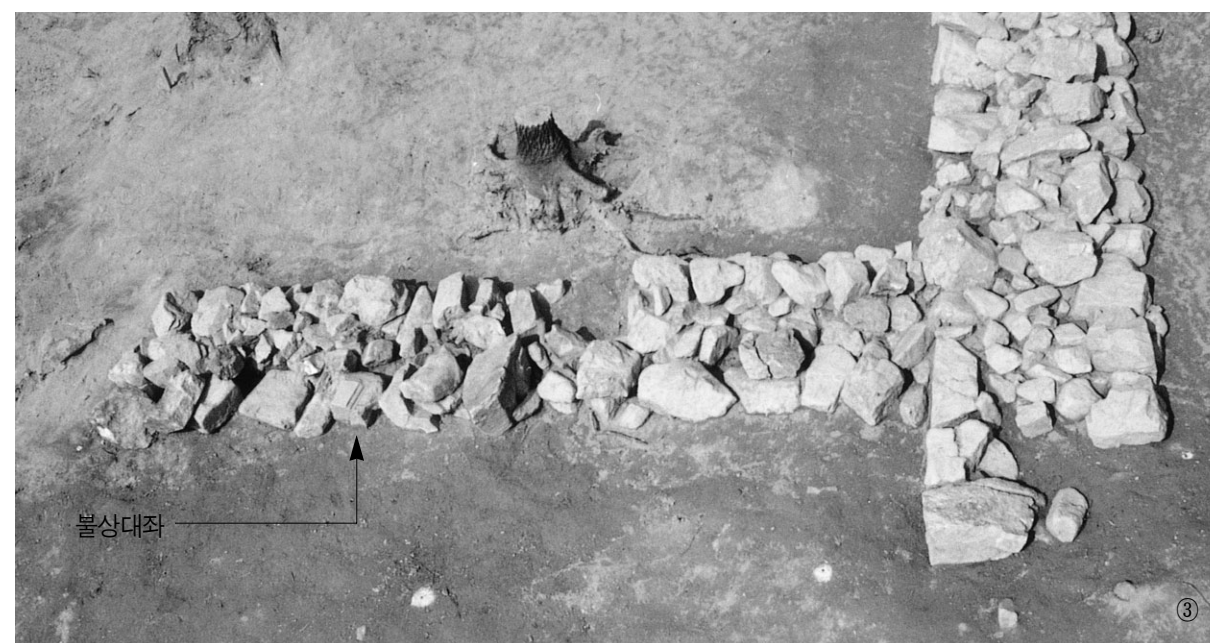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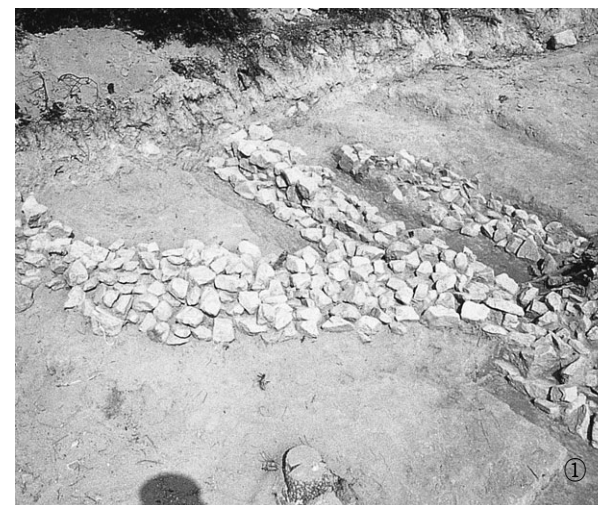


사진 11. 1호 담장지 북측 이형유구(①·②), 1호 담장지 동서담장석렬(②), 2호 담장지 전경(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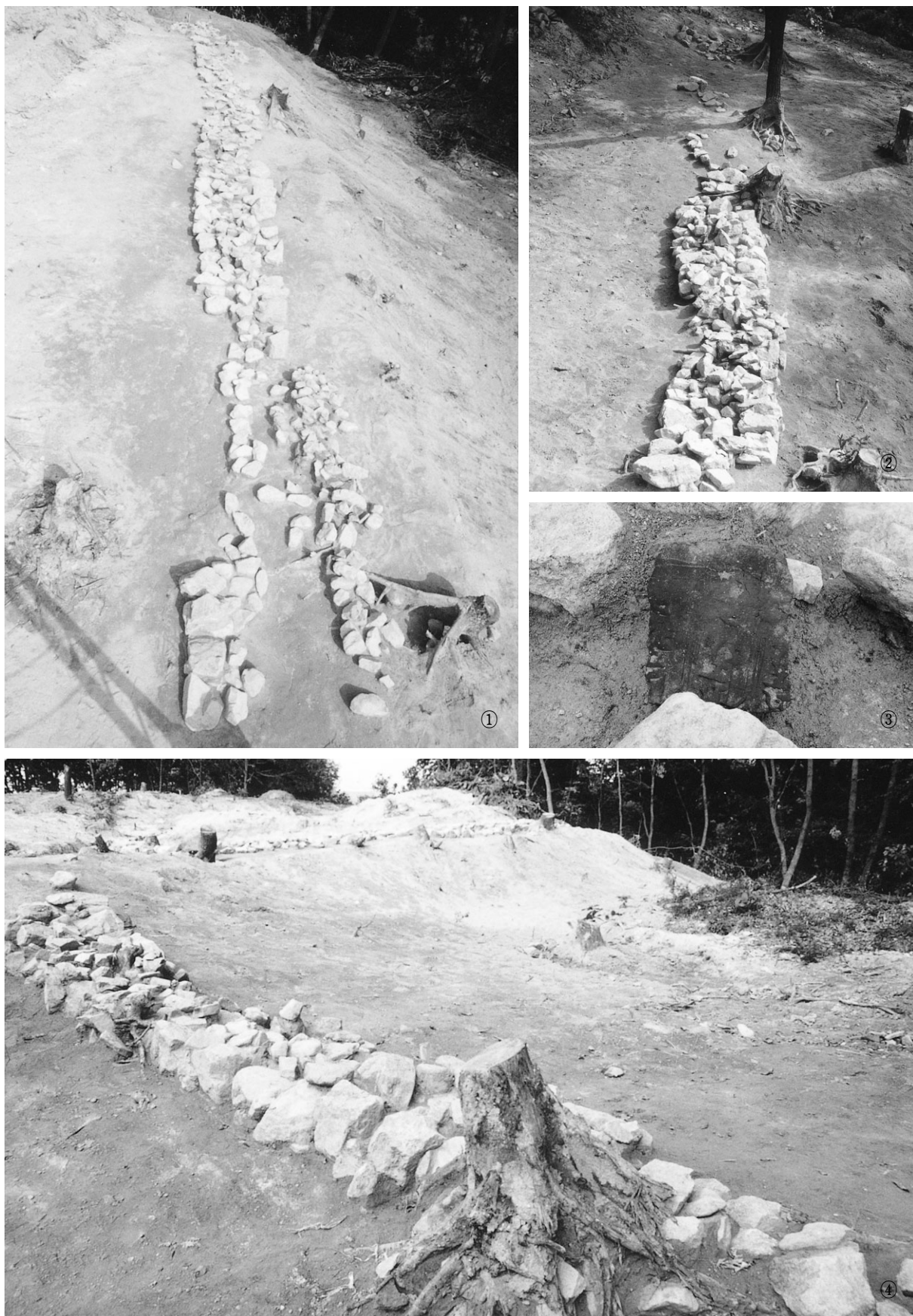


사진 12. 2호 담장지 동서·담장석렬 전경(①), 남북담장석렬 전경(②), 유물출토상태(②), 2호 담장지 전경(남→북)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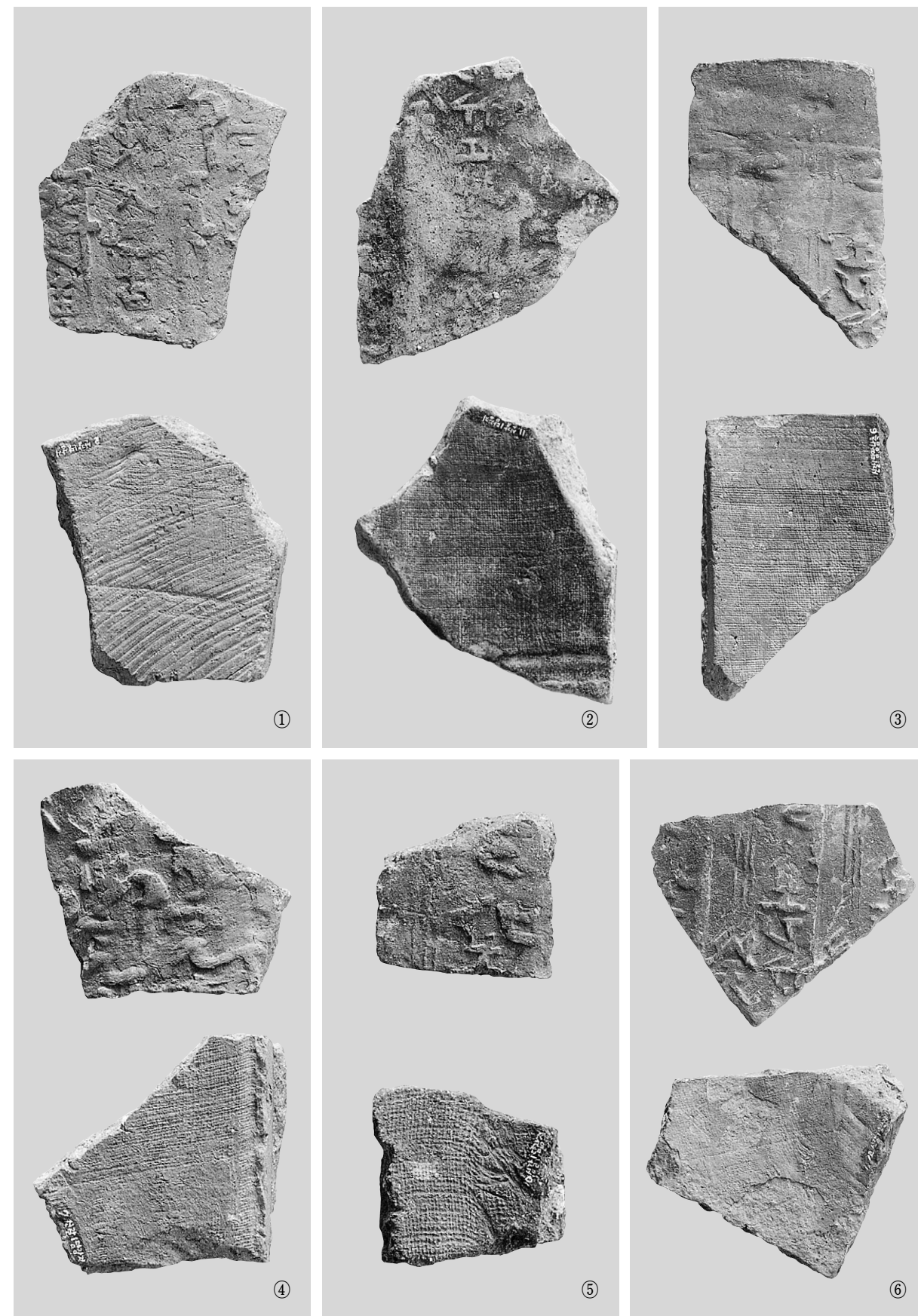


사진 13. 1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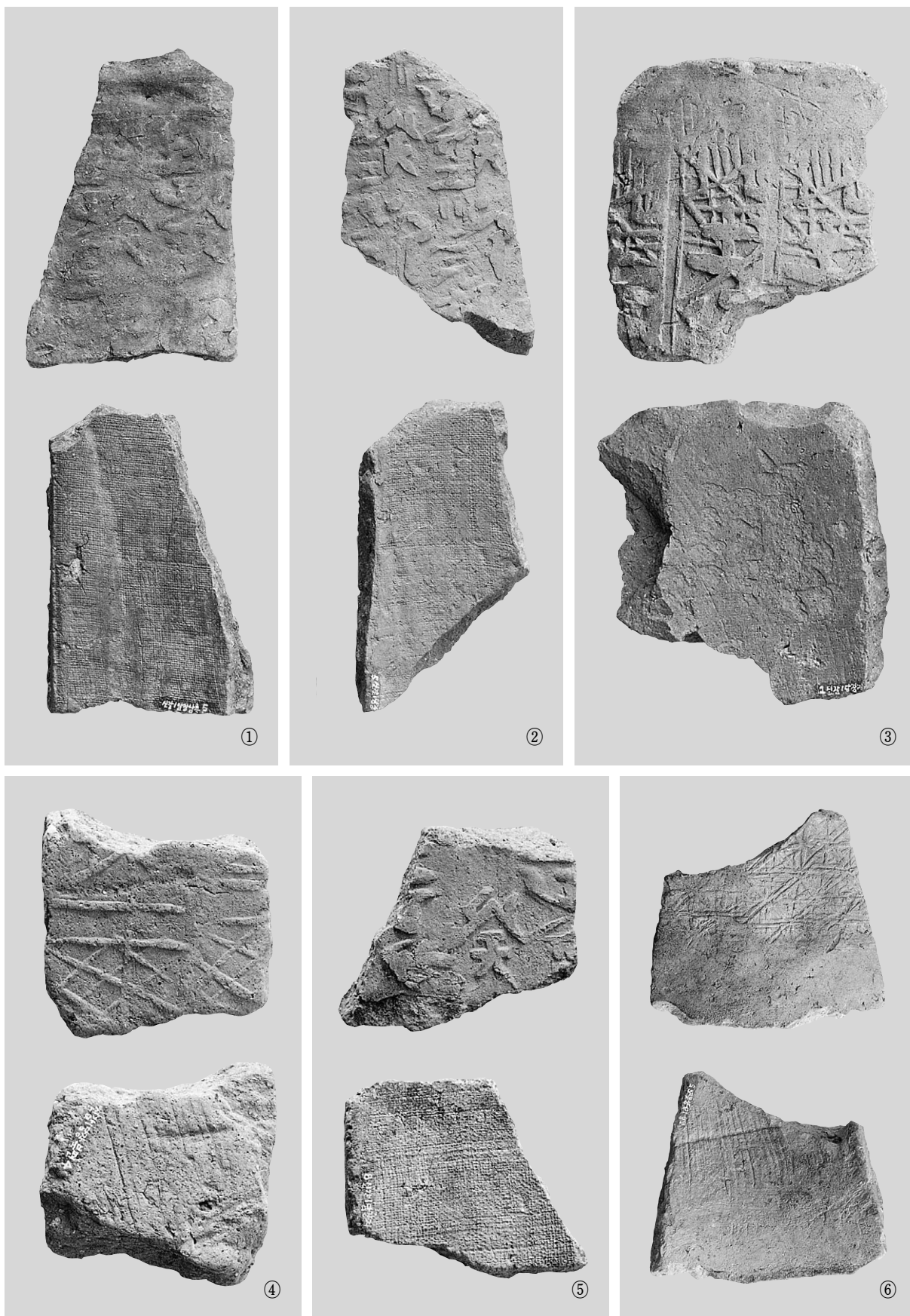


사진 14. 1호 담장지 출토유물 (명문기와(①~③·⑤), 문양기와(④·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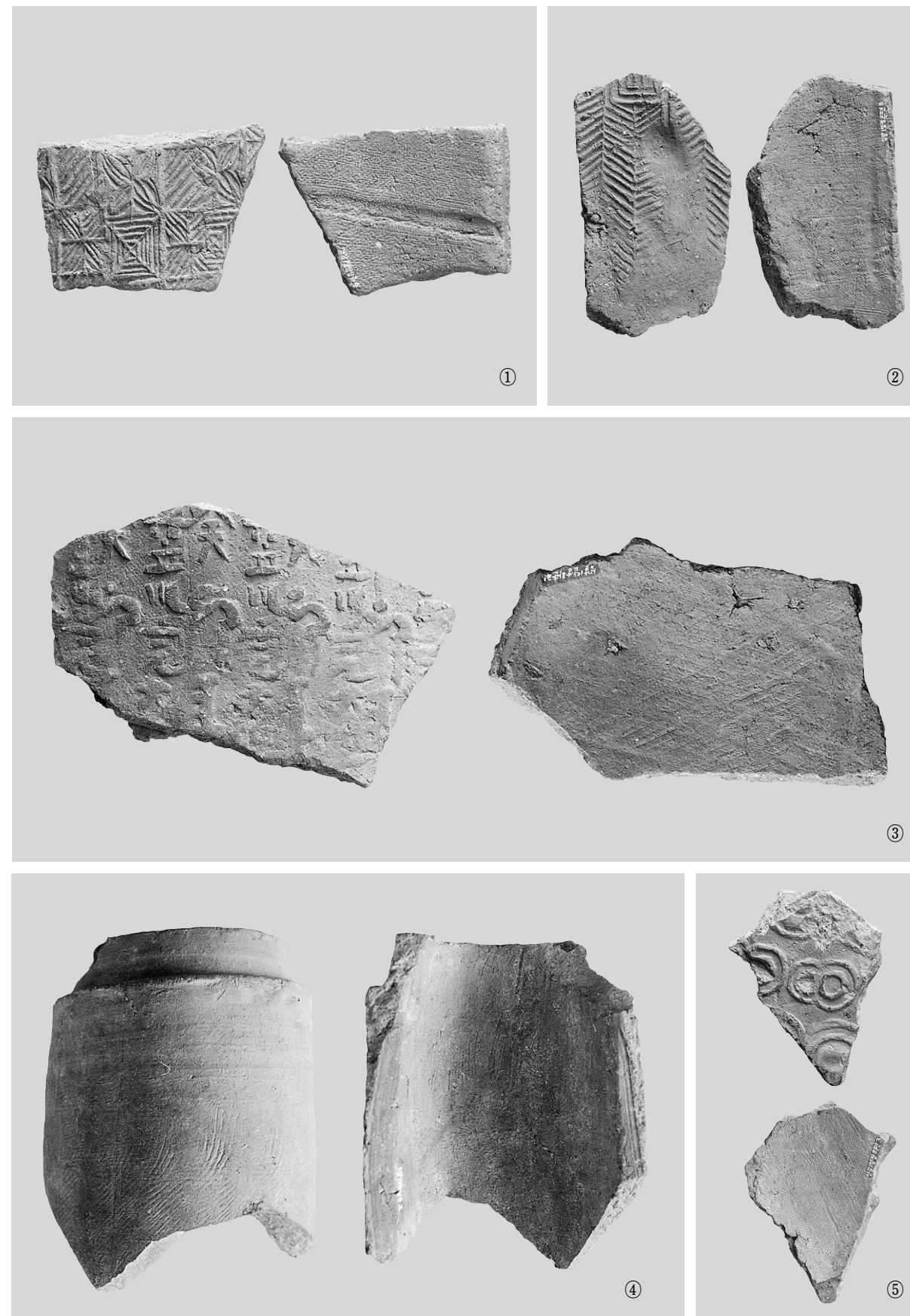


사진 15. 1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기와(③), 문양기와(①~②, ④~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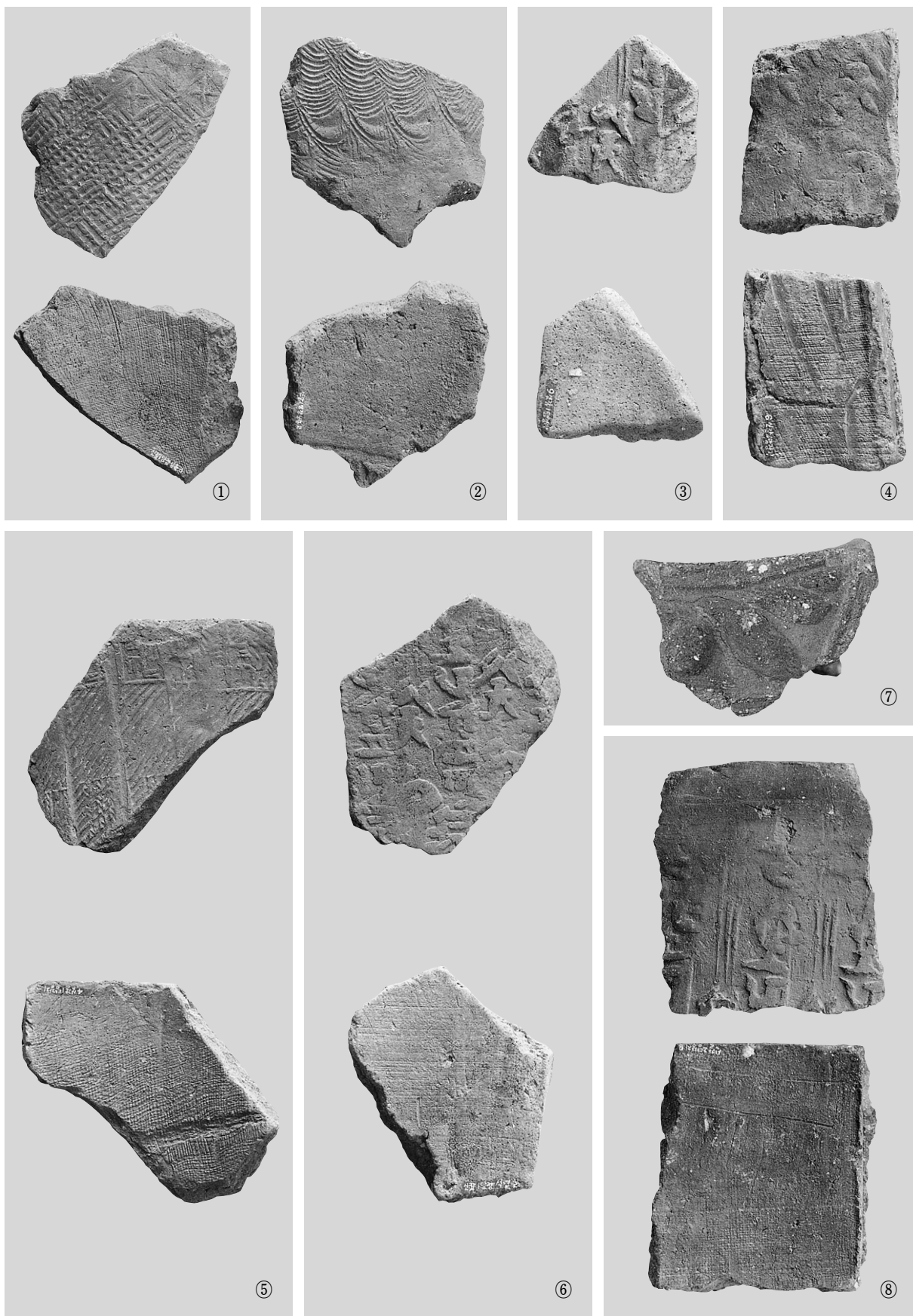


사진 16. 1·2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기와(②~⑥, ⑧), 암막새(⑦), 문양기와(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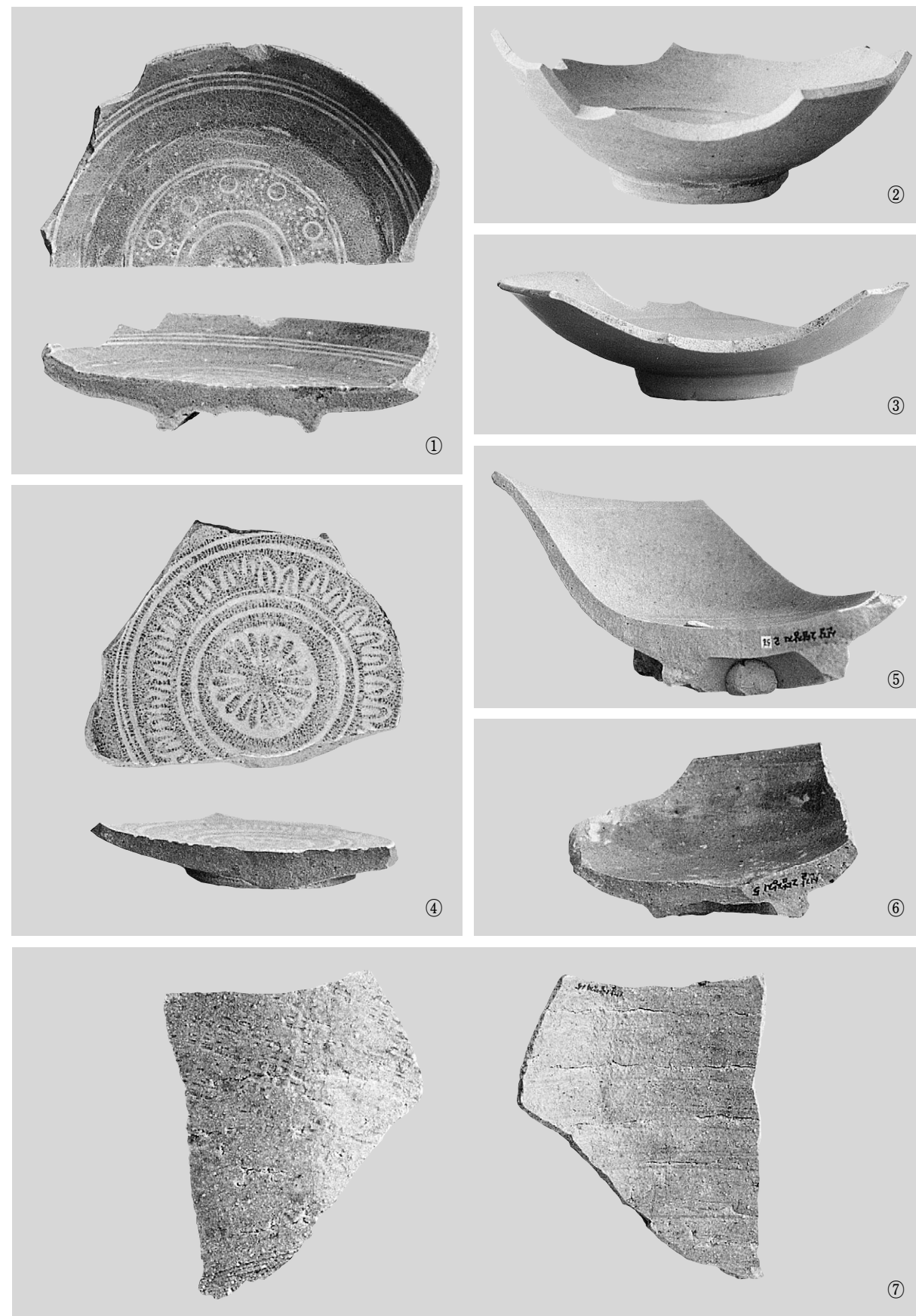


사진 17. 1·2호 담장지 출토유물(자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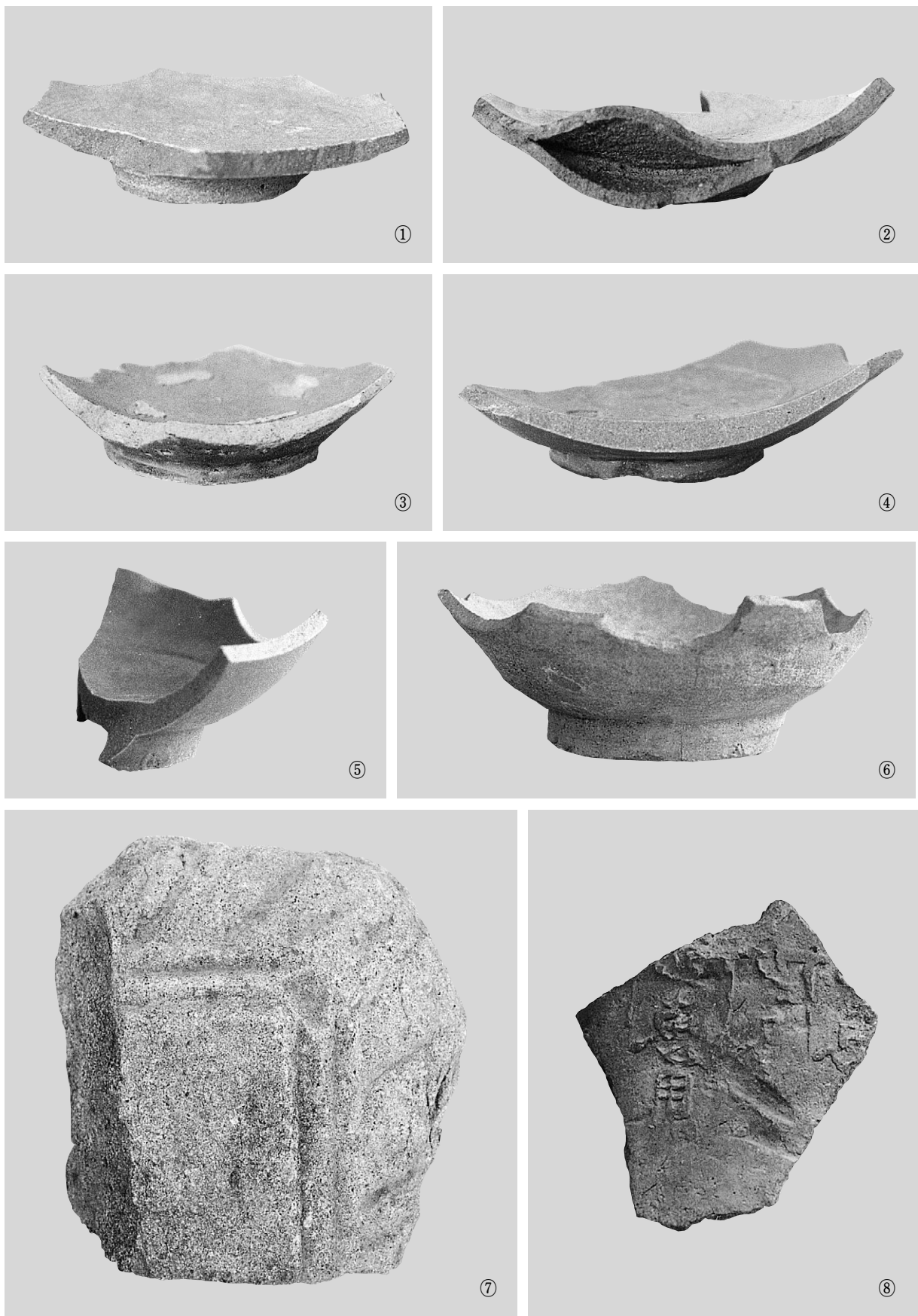


사진 18. 1·2호 담장지 수습유물(자기(①~⑥), 불상대좌(⑦), 지표조사 수습기와(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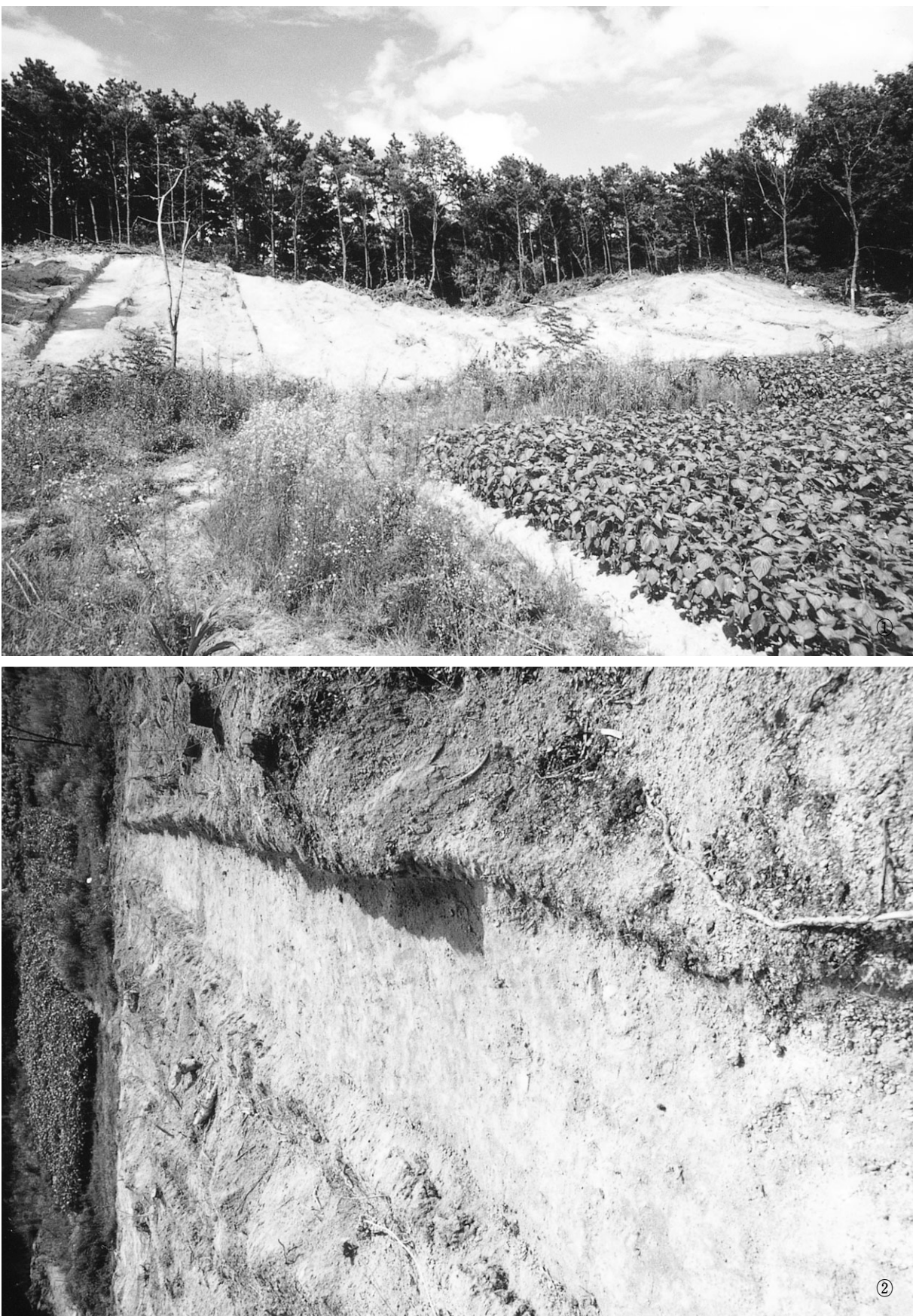


사진 19. 4구역 트렌치 상태(①) 및 트렌치 세부모습(②)

學術調查報告 第14冊
龍仁 新葛 宅地開發地區內 發掘調査 報告書
2001年 3月 25日 印刷 2001年 3月 30日 發行 編 輯：畿甸文化財研究院 發 行：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 031)258-5105, fax 031)258-7116
印刷處：京畿出版社 住 所：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2-11 ☎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